

麻黃과 石膏의 效能에 대한 比較 研究 - 相互 類似性を 中心으로 -

¹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 ²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助教授
³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副教授
安鎮熹¹·金尙賢²·金鍾鉉^{3*}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huang and Shigao - Focusing on Their Similarity -

Ahn Jinhee¹·Kim Sang-hyun²·Kim Jong-hyun^{3*}

¹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operties of Mahuang and Shigao based on their similar effects and how they are manifested in formulas that include these medicinals.

Methods : Descriptions of Mahuang and Shigao as written in the *Shennongbencaojing*, *Mingyibielu*, *Bencaogangmu*, *Benjingshuzheng*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ir similar traits. Formulas in which these medicinals were both used for their similar effects were analyzed.

Results & Conclusions : Mahuang and Shigao, through their interaction, both communicate fluids, relieve stagnation, and draw out heat or Yang qi from the Yin part. These similarities influence each other, which is related to their common meridian tropism, the Lung Channel, to diffuse, purify and descend. The ten formulas that include the two medicinals were similar in that Yin and Yang were interactive. Of these, those that relieved stagnation were Maxingganshitang and Daqinglongtang. Those which communicated fluids and relieved stagnation were Yuebitang, Yuebijiabanxiatang, Yuebijiashutang, Xiaoqinglongjiashigaoatang, Houpumahuangtang, and Wengetang. Those that drew out heat or Yang qi from the Yin part through interaction between Yin and Yang were Guizhieryuebiyitang and Mahuangshengmatang. Previous studies stated that Mahuang and Shigao are different and using both medicinals in the same formula would repress each other or balance each other out-this study focused on their common properties which resulted i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Key words : Mahuang(麻黃), Shigao(石膏), Maxingganshitang(麻杏甘石湯), Daqinglongtang(大青龍湯), Benjingshuzheng(本經疏證)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November 6, 2023), Revised(February 2, 2024), Accepted(February 2,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傷寒論』에서 藥物을 配伍할 때에 石膏와 知母, 柴胡와 黃芩처럼 四氣가 寒涼한 것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고, 附子和 乾薑, 麻黃과 桂枝처럼 四氣가 溫熱한 것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으며, 麻黃과 石膏, 黃連과 乾薑, 大黃과 桂枝, 枳實과 厚朴처럼 四氣가 상반된 것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¹⁾ 한편 張仲景이 운용한 石膏가 포함된 17개의 方劑 중에서 중요한 藥對 配伍 중 石膏와 麻黃을 함께 쓴 方劑는 『傷寒論』에서 麻杏甘石湯, 大青龍湯, 桂枝二越婢一湯, 麻黃升麻湯 등 모두 4개의 方劑가 있고²⁾, 『金匱要略』에서 大青龍湯, 越婢湯, 越婢加半夏湯, 越婢加朮湯, 小青龍加石膏湯, 厚朴麻黃湯, 文蛤湯 등 모두 7개의 方劑가 있어서³⁾, 두 책을 합쳐서 중복된 大青龍湯을 제외하면 모두 10개의 方劑에서 石膏와 麻黃을 배합하여 쓰고 있다. 石膏와 麻黃을 배합하여 쓴 方劑는 모두 10개로 石膏가 포함된 17개의 方劑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張仲景이 쓴 여러 약물의 조합 중에서 麻黃과 石膏의 조합은 빈도수가 높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과서에서 麻黃은 發散

風寒藥에 속하여 辛微苦溫의 性味로 發汗散寒·宣肺平喘·利水消腫하고⁶⁾, 石膏는 淸熱瀉火藥에 속하여 辛甘大寒한 性味로 生用하면 淸熱瀉火·除煩止渴한다고 하였다.⁷⁾ 이처럼 麻黃의 성질은 따뜻하고, 石膏의 성질은 차서 두 약물은 상반된 모습인데, 두 약물이 함께 쓰이는 方劑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모두 1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麻黃과 石膏가 약물의 四氣 方面에서 겹으로 보기에 寒熱이 상반되어 보여도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 藥對처럼 함께 써서 여러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神農本草經』에서 麻黃의 효능에 대해 ‘發表出汗’⁸⁾이라고 하였고, 『名醫別錄』에서 石膏의 효능에 대해 ‘解肌發汗’⁹⁾이라고 하는 등 麻黃과 石膏가 상호 유사한 지점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麻黃과 石膏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麻黃과 石膏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大青龍湯 관련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보였는데¹⁰⁾, 石膏가 배합된 약물에 따라 淸胃熱하기도 하고, 石膏와 麻黃을 배오하여 體表 가까이에 있는 裏熱을 透達시키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麻黃과 石膏의 유사성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것은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麻黃과 石膏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麻黃과 石膏의 配伍와 관련하여 그 차이점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宋小強¹¹⁾·徐偉輝¹²⁾·張保

1) 林佩莉. 《傷寒論》藥對配伍規律的研究. 浙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pp.5-10.
2)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585.
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693.
4) 夏志強. 張仲景《傷寒雜病論》中石膏的應用規律研究. 成都中醫藥大學. 2020. pp.37-39.
5) 寒熱이 상반된 약물의 조합 중 黃連과 乾薑이 함께 들어가는 처방은 『傷寒論』에서 乾薑黃連黃芩人參湯, 甘草瀉心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烏梅丸, 黃連湯 등 총 6개이고, 『金匱要略』에서는 甘草瀉心湯, 半夏瀉心湯, 烏梅丸 등 총 3개로 두 책을 합쳐서 모두 6개의 처방에서 쓰이고 있다. 大黃과 桂枝가 함께 들어가는 처방은 『傷寒論』에서 桂枝加大黃湯, 桃核承氣湯, 柴胡加龍骨牡蠣湯 등 총 3개이고, 『金匱要略』에서는 鼈甲煎丸, 風引湯, 厚朴七物湯 등 총 3개로 두 책을 합쳐서 모두 6개의 처방에서 쓰이고 있다. 枳實과 厚朴이 함께 들어가는 처방은 『傷寒論』에서 大承氣湯, 小承氣湯, 麻子仁丸, 梔子厚朴湯 등 총 4개이고, 『金匱要略』에서는 大承氣湯, 小承氣湯, 麻子仁丸, 枳實薤白桂枝湯, 厚朴大黃湯, 厚朴三物湯, 厚朴七物湯 등 총 7개로 두 책을 합쳐서 모두 8개의 처방에서 쓰이고 있다.

6)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152-154.
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199-201.
8) 尙志鈞 輯校. 尙元勝 等 整理. 神農本草經輯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159. “麻黃味苦溫, 主治中風, 傷寒頭痛, 溫瘧, 發表出汗, 去邪熱氣, 止欬逆上氣, 除寒熱, 破癥堅積聚.”
9)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59. “石膏, 味甘大寒無毒, 主除時氣, 頭痛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膈熱, 解肌發汗, 止消渴煩逆.”
10) 박상균, 방정균. 『傷寒論』大青龍湯證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14. 27(2). pp.127-134.
11) 宋小強. 淺析麻黃與石膏配伍在仲景方中的應用. 陝西中醫函授. 1987. 3. pp.5-6.
12) 徐偉輝, 龔高柏. 《傷寒雜病論》中麻黃與石膏配伍規律探討. 國醫論壇. 2001. 2. pp.2-3.

偉¹³⁾·李晨光¹⁴⁾·林佩莉¹⁵⁾·朱美香¹⁶⁾·劉靜¹⁷⁾·張清怡¹⁸⁾·閔明¹⁹⁾·夏志強²⁰⁾의 연구는 麻黃과 石膏가 一溫一寒하여 麻黃의 溫性이 石膏가 차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쇄시키고, 石膏의 寒性은 麻黃이 辛溫해서 생길 수 있는 과도한 發散力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상호 制約하는 관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麻黃과 石膏의 상대적인 用量的 多少에 따라 發散인지 淸熱인지 효능의 중점이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王小榮 등도 上記 논문과 비슷한 취지였으나 좀 더 動態的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측면이 차이가 있었으며²¹⁾, 胡紫馨²²⁾ 등은 麻黃과 石膏 외에 杏仁을 함께 포함시켜 연구한 점이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에 기반하여 두 약물의 配伍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자는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本草綱目』, 『本經疏證』 등의 本草書를 대상으로 麻黃과 石膏의 效能主治 설명을 분석하여 상호 유사성을 추출해보고, 이 유사성이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方劑에서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여러 本草書들 중 이 네 개의 本草書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첫째,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은 本草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기에 선택했다. 둘째 『本經疏證』은 鄒澍가 1832년에 편찬한 책

으로,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을 주로 삼고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의 方書를 중심으로 藥理를 분석하며, 『神農本草經』의 性味와 效能과 主治 등을 注疏한 책으로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方劑들은 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두 책의 方劑를 분석함에 있어서 『本經疏證』은 病因 病機와 관련하여 유효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에 선택하였다.²³⁾ 셋째 『本草綱目』은 李時珍이 1590년에 간행한 本草書로 『神農本草經』으로부터 金元四大家의 본초 이론 등 역대 본초 문헌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本草書로, 특히 發明 부분에서 張元素, 李東垣, 王好古, 李時珍 등 여러 의가들의 유효한 論說을 기재하고 있기에 선택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方劑를 논의할 때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에 기반하여 두 약물의 配伍를 설명하였으며, 상호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만약 기존의 방식대로 麻黃과 石膏를 함께 쓴 것에 대해 麻黃은 따뜻한 성질로써 石膏의 찬 성질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石膏는 찬 성질로써 麻黃의 과도한 발산력을 방지하기 위해 쓰였다고 한다면 麻黃이나 石膏가 부작용을 발휘하지 않을 만큼의 용량만을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麻黃과 石膏의 配伍를 기존 방식대로 一溫一寒이라는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 麻黃은 따뜻한 성질로써 發汗하고, 石膏는 찬 성질로써 煩躁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등 麻黃과 石膏의 효능이 따로 따로 별개로 인식이 되며, 麻黃과 石膏가 一溫一寒임에도 함께 써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없어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麻黃과 石膏의 配伍가 어떤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麻黃과 石膏를 함께 쓴 이유는 一溫一寒이라는 기존의 설명 외에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 麻黃과 石膏를 함께 配伍하여 쓴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3) 張保偉. 《傷寒雜病論》中麻黃石膏用量比與其作用關係探討. 河南中醫, 2003. 23(1). pp.7-8.
14) 李晨光, 賈波, 張建偉. 基於現代醫案探討麻黃與石膏的配伍特點. 江西中醫藥, 2010. 41(08). pp.20-22.
15) 林佩莉. 《傷寒論》藥對配伍規律的研究. 浙江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pp.9-10.
16) 朱美香, 張仲景石膏配伍規律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1. 17(06). pp.672-673.
17) 劉靜, 傅杰, 丁軻. 試論麻黃、石膏核心藥組在方劑配伍中的意義. 中醫研究, 2013. 26(10). pp.50-51.
18) 張清怡 外 3人. 《傷寒論》麻黃石膏表裏同治探要. 吉林中醫藥, 2013. 33(04). pp.325-326.
19) 閔明 外 4人. 經方中麻黃與石膏的配伍規律探析. 上海中醫藥大學學報, 2015. 29(02). pp.11-13, p.16.
20) 夏志強, 張仲景《傷寒雜病論》中石膏的應用規律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pp.37-38.
21) 王小榮, 趙永山. 從麻黃與石膏的運用看《傷寒論》的動態辨證. 國醫論壇, 2002. 17(2). p.2.
22) 胡紫馨, 余芙蓉, 于河. 從幾何結構解析經典方劑中麻黃與石膏的配伍規律.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20. 43(04). pp.275-279.

23) 安鎮熹. 『本經疏證』의 『本草述』 引用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1. 34(1). pp.103-1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本草綱目』, 『本經疏證』 등의本草書를 대상으로 우선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麻黃과 石膏의 效能主治 설명을 분석하여 상호 유사성을 추출해보고, 기존의 一溫一寒이라는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설명방식이 아니라 상호 유사성을 중심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10개의 方劑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麻黃과 石膏의 상호 유사성을 다루었으므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기초 연구 및 本草學과 方劑學의 기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I. 本論

1.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

본 연구가 麻黃과 石膏의 상호 유사성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기존에 논의된 麻黃과 石膏의 차이점은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현행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과서 및 本草 관련해서는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本草綱目』, 『本經疏證』 등의 문헌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본초학 교과서에서 麻黃은 解表劑 중 發散風寒藥에 속하여 辛微苦溫하며 肺·膀胱으로 들어가 發汗散寒·宣肺平喘·利水消腫하여 風寒感冒·胸悶喘咳·風水浮腫·氣管支哮喘을 치료하고, 蜜炙하여 潤肺止咳한다고 하였으며²⁴⁾, 石膏는 清熱藥 중 清熱瀉火藥에 속하여 辛甘大寒하며 肺·胃에 들어가 生用하면 清熱瀉火·除煩止渴하여 熱病壯熱不退·煩渴·神昏譫語·發狂·發斑·肺熱喘咳·中暑自汗·胃火頭痛·牙痛·口舌生瘡을 치료하고, 煨用하면 生肌斂瘡하여 癰疽瘡瘍·潰不收口·湯火燙傷을 치료한다고 하였다.²⁵⁾

麻黃의 性味는 辛溫하면서 苦味が 조금 있는 만

면 石膏의 性味는 辛大寒하면서 甘味が 있어서 麻黃과 石膏는 寒熱이 상반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麻黃의 歸經은 肺·膀胱經인 반면에 石膏의 歸經은 肺·胃經이어서 두 약물 모두 肺로 歸經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麻黃은 膀胱經에도 들어가 利水하는 효능이 있고, 石膏는 胃經에도 들어가 除煩止渴한다. 麻黃은 發汗 작용이 강하여 風寒感冒 초기에 나타나는 惡寒發熱·身痛頭痛·無汗에 쓸 수 있고, 石膏는 清熱瀉火하여 肺熱喘咳를 다스리고 陽明病에 나타나는 煩渴이나 神昏譫語 등을 다스린다.

역대 本草書 중 『神農本草經』에서는 麻黃의 性味에 대하여 苦溫하다고 하였으며²⁶⁾, 『名醫別錄』에서는 微溫하다고 하였으며²⁷⁾, 『本草綱目』에서 李時珍은 微苦辛하고 性熱하며 輕揚하다고 하였고, 같은 책에서 張元素를 인용하여 性溫하고 味苦甘辛하며 氣味俱薄하고 輕清而浮하며 陽의 성질을 지니고 升한다고 했으며²⁸⁾, 『本經疏證』에서는 麻黃을 재배하는 곳에는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으니, 至陰으로부터 陽氣를 펼치기 때문에 盛寒에도 얼지 않고, 輕清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上下內外로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²⁹⁾.

한편 石膏의 性味에 대하여 『神農本草經』에서는 辛微寒하다고 하였고³⁰⁾, 『名醫別錄』에서는 甘大寒하다고 하였으며³¹⁾, 『本草綱目』에서 張元素를 인용하

26) 尙志鈞 輯校, 尙元勝 等 整理. 神農本草經輯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159. “麻黃味苦溫, 主治中風, 傷寒頭痛, 溫瘧, 發表出汗, 去邪熱氣, 止欬逆上氣, 除寒熱, 破癥堅積聚.”

27)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270-271. “麻黃, 微溫無毒, 主治五藏邪氣緩急, 風脇痛, 字乳餘疾, 止好唾, 通腠理, 疏傷寒頭痛, 解肌, 洩邪惡氣, 消赤黑斑毒, 不可多服, 令人虛.”

28)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新校注本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696-698. “元素曰, 性溫, 味苦而甘辛, 氣味俱薄, 輕清而浮, 陽也, 升也.”

29)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故栽此物之地, 冬不積雪, 爲其能伸陽氣於至陰中, 不爲盛寒所凝耳. …中略…”, 麻黃氣味輕清 能微上微下 微內微外.”

30) 尙志鈞 輯校, 尙元勝 等 整理. 神農本草經輯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79. “石膏味辛微寒, 主治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口乾舌焦不能息, 腹中堅痛, 除邪鬼, 產乳, 金創.”

31)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

2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152-154.

2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pp.199-201.

여 性寒하고 味辛淡하며 氣味俱薄하고 體重而沈하며 降하고 陰의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으며³²⁾, 『本經疏證』에서 石膏는 體質이 가장 무겁고 광명하고 윤택하다고 하였다³³⁾.

上記한 내용을 통해 麻黃은 그 성질이 溫熱하고 石膏는 그 성질이 寒하여 寒熱이 상반되는 차이점을 지녔고, 麻黃은 가볍고 맑으며 뜨고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陽의 성질을 지녔지만, 石膏는 무겁고 가라앉으며 하강하여 전체적으로 陰의 성질을 지녀 陰陽의 속성과 輕重升降에 있어서 두 약물이 서로 대비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張仲景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합쳐 10개의 方劑에서 麻黃과 石膏를 配伍한 목적이 꼭 一溫一寒이라는 상반된 성질로 서로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인지 혹시 麻黃의 효능을 『神農本草經』에서 ‘發表出汗’³⁴⁾이라고 하였고, 石膏의 효능을 『名醫別錄』에서 ‘解肌發汗’³⁵⁾이라고 했는데, 두 약물 사이에 공통분모와 같은 상호 유사한 지점이 존재하기에 두 약물을 함께 配伍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호 유사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配伍하여 사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한다.

2.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本草綱目』, 『本經疏證』의 麻黃 항목과 石膏 항목을 분석해보니 두 약물은 肺經으로 歸經하며, 性味 중 味 方面에서 辛味를 지니고 있고, 두 약물의 陰陽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有汗에는 麻黃을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사실이지만 麻杏甘石湯과 越婢湯은 모두 有汗이 있으니, 땀이 나는데 또 麻黃을 쓰면 亡陽이 될까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땀이 많아서 亡陽하는 것은 佐使藥으로 溫藥을 썼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寒邪가 밖에 붙어서 熱氣가 沸騰하는 것은 원래 身中の 陰氣가 막혀서 陽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麻黃湯과 靑龍湯의 뜻은 陰을 陽과 교제하게 해서 陽氣가 和하면 밖에 붙었던 陰寒과 和하여 땀이 되는 것이다. 만약 과하게 복용하면 陽氣가 外泄하고 陰은 안에서 싸우게 되니 이것을 汗多亡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證은 이미 땀이 났는데도 陽이 아직도 매우 盛해서 陰과 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陰을 밖으로 逼迫해서 땀이 되고, 혹은 陰을 위로 쫓아서 喘이 되며, 혹은 陽이 宣發하지 않고 鬱하여 風水가 되고, 위로 氣를 막아서 肺脹이 된다. … 中略 …, 모두가 陰과 陽이 싸우는데 陽을 이기지 못하고, 陽이 결취하여 陰이 산만하며,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전수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데 麻黃으로 그 陽을 선발하지 않으면 陽이 결국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石膏를 써서 泄陽通陰하지 않으면 陰이 결국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처방은 麻黃을 썼을 뿐 아니라 多用했으며, 또 배로 사용했다.”³⁶⁾ 『本經疏證·麻黃』

上記 문장에서 陰陽의 세력이 다투었을 때 陰陽의 상호 대립 상황에서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陽이 결취하여 陰이 산만하며,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生出版社. 1994. p.159. “石膏, 味甘大寒無毒, 主除時氣, 頭痛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膈熱, 解肌發汗, 止消渴煩逆, 腹脹, 暴氣喘息, 咽熱, 亦可作浴湯.”

32)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新校注本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384-387. “元素曰, 石膏性寒, 味辛而淡, 氣味俱薄, 體重而沈, 降也, 陰也.”

33)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石膏體質最重, 光明潤澤.”

34) 尙志鈞 輯校. 尙元勝 等 整理. 神農本草經輯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159. “麻黃味苦溫, 主治中風, 傷寒頭痛, 溫瘧, 發表出汗, 去邪熱氣, 止欬逆上氣, 除寒熱, 破癥堅積聚.”

35) 陶弘景 編. 尙志鈞·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59. “石膏, 味甘大寒無毒, 主除時氣, 頭痛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膈熱, 解肌發汗, 止消渴煩逆.”

36)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有汗不得用麻黃, 斯言信矣. 然麻黃杏仁甘草石膏湯, 越婢湯二證, 皆有汗出, 汗出更用麻黃, 獨不畏其亡陽耶. 雖然汗多亡陽, 爲佐使用溫藥者言耳. 夫寒邪外著, 熱氣騰沸, 原因身中陰氣痺阻, 不與陽交, 故麻黃靑龍等湯義, 在使陰交於陽, 陽氣既和, 遂和於外著之陰寒爲汗, 設服之過劑, 則陽纔外洩, 陰即內爭, 此汗多亡陽之謂矣. 茲二證者, 既已有汗, 陽猶甚盛, 不與陰和, 故或溫陰於外爲汗, 或逐陰於上爲喘, 或陽鬱不宜爲風水, 或阻氣於上爲肺脹, …中略…, 可見皆陰與陽爭, 不能勝陽, 陽結聚而陰散漫, 陽上薄而陰不下輸, 如是而不用麻黃發其陽, 陽終不能布, 不用石膏泄陽通陰, 陰終不能歸.”

아래로 轉輸되지 않게 되고, 그 상황에서 麻黃으로 ‘發陽’하여 陽을 布散시켜야 하며, 石膏로 ‘泄陽通陰’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해야 함을 말하였다. 麻黃으로 ‘發陽’한다는 것은 ‘從陰通陽’과 같은 말로 陰分에 陽이 결취되어 있는 것을 發揚하는 것이고, 石膏로 ‘泄陽通陰’하는 것은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전수되지 않음에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石膏의 ‘泄陽通陰’은 뒤에서 ‘洩熱(=泄熱)’ 혹은 ‘泄熱通陰’이라고 했는데, 熱을 누설시켜 陰으로 하여금 陽과 교통하게 함으로써 陽의 맹렬함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陰과 陽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 陰陽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互根 互用이라고도 할 수 있다.

“麻黃이 石膏를 얻으면 發散이 猛峻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경전에 보이지는 않지만 麻杏甘石湯의 汗出而喘과 越婢湯의 續自汗出로 본다면 根據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麻黃을 쓴 것은 陰으로부터 陽을 통하게 하려는 것(從陰通陽)이다. 하지만 陽이 陰에게 당하는 原因이 한들이 아니니, 寒으로 인해서 凝하기도 하고, 熱로 인해서 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輔佐하는 것으로 桂枝 아니면 石膏를 더하는 것이다. …中略…, 게다가 寒으로 인한 것은 몸이 불덩이와 같으니 汗을 내서 發散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熱로 인한 것은 陽이 猖狂하여 陰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이니, 陰으로 하여금 陽과 교류하게 하려면 洩熱하지 않고는 不可하다. 단지 한갓 熱을 배설하지만 하면 陰이 도리어 방자하여 陽을 疇박할까 두려우므로 일면으로는 石膏로 洩熱하고, 麻黃으로 陰을 통하게 하여 鬱勃한 陰으로 하여금 陽을 따라 洩하게 하면 柔和한 것은 陰과 서로 교류할 것이다.”³⁷⁾ 『本經疏證·石膏』

『本經疏證·石膏』의 上記 내용을 통해 麻黃이 石膏와 함께 쓰이게 되면 麻黃의 發散力이 사납지 않아서 ‘汗出而喘’, ‘續自汗出’과 같은 汗이 나는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고, 특히 寒邪에 의하여 응체되었을 때는 麻黃과 桂枝를 함께 써서 發散하지만, 熱로 인하여 壅滯되면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熱의 壅滯를 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麻黃과 石膏를 配伍했을 때 麻黃의 역할은 ‘從陰通陽’하고, 石膏는 ‘洩熱’한다고 했는데, 麻黃의 ‘從陰通陽’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發陽과 같은 것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陰으로부터 陽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陰分에 陽이 결취되어 있는 것을 發揚시키는 것을 말한다. 石膏의 ‘洩熱’은 날뛰는 熱을 배설시켜 陽의 세력을 덜어냄으로써 부드럽고 柔和로워져서[柔和] 에너지의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陰으로 하여금 陽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陽의 맹렬함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앞에 나온 ‘泄陽通陰’과 같다. 石膏를 써서 ‘泄熱’시키는 이유는 陰과 사귀고 소통시키기 위함인데, 한편 ‘泄熱’에만 너무 치우쳐서 陽氣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陰의 세력이 陽을 疇박하고 방자해져서 陽을 疇박하면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兩面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石膏로 ‘泄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陰의 세력이 방자해지지 않게 麻黃으로 ‘通陰’시킨다고 했다. 앞에서 ‘從陰通陽’이라고 말했다가 뒤에서는 ‘通陰’이라고 하니, 陰陽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麻黃으로 ‘通陰’시킨다고 한 것은 결국 麻黃의 發汗 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도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³⁸⁾라고 했는데, 麻黃의 辛味로 氣를 돌려서 腠理를 열어 發汗시키고 津液을 이르게 함을 말한다. 또한 上記 내용에서 麻黃으로 陰을 통하게 하여[通陰] 鬱勃한 陰으로 하여금 陽을 따라 洩하게 한다고 했는데, 鬱勃이라는 것은 울체되었다가 우썩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陰의 세력이 점점 방자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石膏로 ‘泄熱’하면서도 陰의 세력이

37) 鄭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麻黃得石膏, 則發散不猛. 此言雖不經見, 然以麻杏甘膏湯之汗出而喘, 越婢湯之續自汗出, 證之則不可謂無據矣. 麻黃爲用, 所以從陰通陽. 然陽厄於陰, 其源不一. 有因寒凝, 有因熱壅, 故其佐之者, 不用桂枝, 則加石膏. …中略…, 況因寒者, 所謂體若燔炭, 汗出而散, 固其所當然也. 因熱者, 乃陽猖而陰不與交, 欲使陰交於陽, 非洩熱不可. 第徒洩其熱, 正恐陰反肆而迫陽, 故一面任石膏洩熱, 隨

手任麻黃通陰, 使陰之鬱勃者, 隨陽而洩, 柔和者, 與陰相交.”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1985. p.88.

방자해지지 않게 麻黃을 써서 울체되었다가 우쩍 일어나는 陰으로 하여금 陽을 따라서 누설시킨다는 것은 麻黃의 發汗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發汗을 통해 결과적으로 津液이 소통되므로 ‘通陰’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麻黃으로 升發해서 發散시킨 뒤에 津液이 肅降되어 通陰하므로 陰陽의 상호 轉化라고도 할 수 있다. 石膏에 대해 원문에서 ‘泄熱通陰’이라고 네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洩熱’이라고 했으나, 기실 그 내용은 ‘泄熱通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熱로 인하여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에서는 陰과 교류하지 못하다가 石膏로 熱을 누설시켜서 熱을 떨어뜨려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 陰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洩熱’은 ‘泄熱通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太陽中風으로 시작한 조문은 脈浮緊, 發熱惡寒, 不汗出而煩躁하여 病은 桂枝에 속하는데 證은 麻黃證을 보이고, 傷寒으로 시작한 조문은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하여 病은 麻黃에 속하는데 證은 桂枝證을 보이니, 두 方劑를 합해서 大靑龍湯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中風證은 煩躁하지 말아야 하는데 煩躁하니, 風의 성질은 熱을 잘 생하여 자꾸 少陰으로 들어가려고 하므로 石膏를 써서 從陰通陽하고 從陽引陰하여 中道에서 단절하여 太陽으로 끌어내야 하지만 麻黃을 배로 하지 않으면 發散의 힘이 없어서 陰은 이미 通陽하여 陽이 陰을 따라 化했는데, 熱證이 없어지기도 전에 寒證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우니 이는 害가 되는 것이다. 傷寒證은 煩躁해야 하는데 煩躁하지 않으니 寒의 성질은 잘 응체되고 모이므로 身重하면서 太陰으로 들어가려 하므로 麻黃을 배로 하여 응취된 것을 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石膏를 더하지 않으면 陰이 지킬 것이 없어서 陽邪가 흠어졌을 때 陰도 따라서 고갈될까봐 두려우니, 이는 죽이는 것이다.”³⁹⁾ 『本經疏證·麻黃』

上記 문장에서 石膏가 ‘從陰通陽’하고 ‘從陽引陰’한다고 했는데, ‘從陰通陽’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 麻黃이 ‘從陰通陽’한다고 한 것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앞의 내용 중 각주 37번에 나오는 麻黃의 ‘從陰通陽’은 陰分에 陽이 결취되어 있는 것을 發揚하는 것으로 ‘發陽’과 같고, 여기서 石膏가 ‘從陰通陽’한다고 한 것은 陽과 陰의 세력 다툼에 있어서 陰이 陽을 이기지 못했을 때 陽이 결취되어 陰이 산만해지고,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못할 때 麻黃을 써서 發陽하여 陽이 퍼질 수 있게 하고, 石膏를 써서 ‘泄陽通陰’하여 위에 뭉쳐있는 陽을 누설하여 陰이 下輸되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게 됨을 말한다. 즉 石膏의 ‘泄陽通陰’을 鄒澍는 ‘泄陽(=泄熱)’과 ‘通陰’으로 나누어서 ‘泄陽’은 ‘從陰通陽’으로, ‘通陰’은 ‘從陽引陰’으로 기술하였다.⁴⁰⁾ 上記 문장에서 麻黃이 ‘發其凝聚’하고 石膏가 ‘泄陽’한다고 했는데, ‘發其凝聚’는 陰分에 결취된 陽을 풀어내는 것으로 ‘發陽’과 같고, ‘從陰通陽’이라고도 할 수 있다. ‘泄陽’은 陽氣가 위쪽에만 뭉쳐있는 것을 누설시켜 下輸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麻黃으로 ‘發陽’하여 陰分에 결취된 것을 풀어내면 邪氣가 땀을 통해 배출이 되니, 陰의 세력이 방자하게 陽을 꺾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며, 石膏의 ‘泄陽’을 통해 위쪽에 뭉쳐있던 것을 누설시키면 陰이 下輸되어 제자리로 되돌아가 陰이 지킬 바가 있을 수 있게 되니, 麻黃의 ‘發陽’과 石膏의 ‘泄陽’으로 ‘通陰’의 효과를 얻는 것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각주 37번에서 麻黃의 ‘通陰’을 말했는데, 麻黃의 ‘通陰’은 陰이 울체되었다가 우쩍 일어나 陽을 꺾박하는 경우에 땀을 통해 내보내서 陰

亟乎將入少陰, 故不得不以石膏從陰通陽, 從陽引陰, 截於中道, 使從太陽解. 然不倍麻黃, 則散發無力, 恐陰既通陽, 隨隨陰化, 熱證未已, 寒證復起, 是適以害之也. 傷寒證應煩躁, 而不煩躁, 是寒性善凝聚, 故身重而將入太陰. 不得不倍麻黃以發其凝聚. 然不加石膏, 則陰無所守, 恐陽邪散, 陰亦隨之以竭, 是適以殺之矣.”

39)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上條冠以太陽中風, 乃脈浮緊, 發熱惡寒, 不汗出而煩躁, 則與太陽中風應服桂枝湯者異. 下條冠以傷寒, 乃脈浮緩身不疼, 但重, 且乍有輕時, 又與太陽傷寒應用麻黃湯者異. 惟其病屬麻黃, 證見桂枝, 病屬桂枝, 證見麻黃, 斯合兩方爲一方矣. 中風證不應煩躁, 而煩躁, 是風性善生熱, 亟

40)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本經疏證·石膏』 항목에는 “風寒搏熱, 用麻黃石膏洩熱通陽, 既知之矣.”와 같이 洩熱通陽(=泄熱通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石膏의 泄熱通陰 작용과 麻黃의 從陰通陽 작용을 합쳐서 泄熱通陽이라고 줄여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의 세력을 약화시켜 진액을 통하게 하는 것이 ‘通陰’이라고 할 수 있는데, 石膏의 ‘泄陽通陰’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本草綱目』의 麻黃 發明에서 “津液은 汗이고, 땀은 血이다. 營分에 있으면 血이 되고, 衛分에 있으면 땀이 된다. 무릇 寒邪가 營分을 傷해서 營血이 안에서 澁하여 밖으로 衛分과 통하지 않으면 衛氣가 막혀서 津液이 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땀이 없고 發熱하면서 憎寒하는 것이다. …中略… 대개 皮毛가 밖으로 막히면 邪熱이 안을 攻하여 肺氣가 鬱滯하게 된다. 그러므로 麻黃·甘草를 桂枝와 함께 써서 營分の 邪氣를 끌어내서 肌表로 達하게 하고, 杏仁을 佐藥으로 하여 肺를 泄해서 氣를 이롭게 한다.”⁴¹⁾라고 했다. 寒邪가 營分을 傷해서 營血이 안에서 澁하여 밖으로 衛分과 통하지 않을 때 發熱惡寒과 無汗 증상이 나타나는데, 麻黃을 써서 營分の 邪氣를 끌어내어 肌表로 도달하게 하는 것은 陰分인 營分에 寒邪로 인해 울체된 陽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本經疏證』에서 나왔던 發陽, 즉 從陰通陽의 설명과 맞닿는다.

또한 『本草綱目』의 石膏 發明에서 “成無己가 이르기를, 風은 陽邪이고, 寒은 陰邪이다. 風은 陽을 잘 傷하고, 寒은 陰을 잘 傷한다. 營衛와 陰陽이 風寒에 傷했을 때는 輕劑로 발산하지 않으면 輕劑와 重劑로 함께 發散해야 陰陽의 邪氣가 함께 없어지고 營衛之氣가 모두 和하게 된다. 그러므로 大靑龍湯이 石膏를 使藥으로 삼았다. 石膏는 重劑이면서도 또 오로지 肌表로 達한다.”⁴²⁾라고 했다. 이는 大靑龍湯의 方劑에서 輕劑인 麻黃과 重劑인 石膏를 함께 써서 發散시킴으로써 땀이 나지 않으면서 煩躁한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重劑인 石膏가 광물성으로 무거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肌表로 透達하게 하는 성질을 활용한 것으로 『本經疏證』에서 나왔던 泄陽通陰의 설명과 맞닿는다. 重劑인 石膏로 洩熱하여 肺熱이 울체된 것을 흠어서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轉輸되게 하여 진액을 생성시키게 하고, 肺主皮毛하므로 肌表로 透達하며, 輕劑인 麻黃으로는 發陽, 즉 從陰通陽하여 陰分인 營分에 寒邪에 의해 울체된 陽氣를 풀어주어 發汗하니 津液이 소통되어 결과적으로 通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陰陽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麻黃이 發表出汗하고 去邪熱氣하며, 除寒熱하여 中風, 傷寒頭痛, 溫瘧 등을 다스린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麻黃이 通腠理, 疏傷寒頭痛, 解肌한다고 한 것이 發陽, 즉 從陰通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神農本草經』에서 石膏가 中風寒熱을 主治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石膏가 解肌發汗하고 頭痛身熱, 皮膚熱, 暴氣喘息 등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 泄陽通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上記한 내용을 통해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살필 수 있었다.

3. 麻黃과 石膏의 유사 효능

『神農本草經』, 『名醫別錄』, 『本草綱目』, 『本經疏證』의 麻黃 항목과 石膏 항목을 분석하여 두 약물의 陰陽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 효능을 살펴보니 津液의 소통, 멎친 것을 풀어냄,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냄 등의 상호 유사한 효능이 존재했다.

1) 津液의 소통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내용을 통해 陰陽이 서로 다룰 때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陽이 결취되어 陰이 산만하고, 陽이 위로 멎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않게 되는데, 이때 麻黃으로 發陽하여 陰分에 결취된 陽을 풀어주고, 石膏로 泄陽通陰하여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轉輸되게 하여 자기 자기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麻黃의 通陰

41)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津液爲汗, 汗卽血也. 在營則爲血, 在衛則爲汗. 夫寒傷營, 營血內澁, 不能外通於衛, 衛氣閉固, 津液不行, 故無汗發熱而憎寒. …中略… 蓋皮毛外閉, 則邪熱內攻, 而肺氣鬱滯. 故用麻黃甘草同桂枝, 引出營分之邪, 達之肌表, 佐以杏仁泄肺而利氣. 汗後無大熱而喘者, 加以石膏.”

42)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成無己曰, 風, 陽邪也. 寒, 陰邪也. 風喜傷陽, 寒喜傷陰. 營衛陰陽, 爲風寒所傷, 則非輕劑所能獨散, 必須輕重之劑同散之, 乃得陰陽之邪俱去, 營衛之氣俱和. 是以大靑龍湯, 以石膏爲使. 石膏乃重劑, 而又專達肌表也.”

은 發汗을 통해 津液이 소통되는 것이며, 石膏의 泄熱通陰은 熱을 누설시켜 陰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며 陽의 맹렬함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두 약물의 通陰은 津液의 소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麻黃과 石膏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陰陽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함께 써서 津液을 소통시키기도 하고, 개별 약재를 살펴보았을 때도 津液을 소통시키는 유사한 효능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麻黃은 氣味가 輕清해서 上下內外로 모두 通하므로 裏에서는 精血津液을 流通시키고, 表에서는 骨節肌肉毛竅를 막히지 않게 하니, 위에서는 咳逆과 頭痛을 없애고, 아래서는 癥堅積聚를 다 깨뜨린다.”⁴³⁾ 『本經疏證·麻黃』

“대개 寒해야만 邪熱의 充斥을 化할 수 있고, 후해야만 上下의 道路를 통하게 할 수 있으며, 澤해야만 津液을 소통시킬 수 있고, 重해야만 浮越한 亢陽을 잡을 수 있다.”⁴⁴⁾ 『本經疏證·石膏』

『本經疏證·麻黃』의 上記 내용을 통해 麻黃의 氣味가 가볍고 맑아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 안으로는 精血과 津液을 유통시키고, 유통시킨 津液을 陽分에 해당하는 骨節이나 肌肉이나 皮毛까지 끌고 와서 發汗을 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麻黃이 津液을 소통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麻黃은 줄기 부분을 약으로 쓰는데 매우 가벼워 氣分에 작용하고, 氣를 소통시켜서 津液을 이르게 한다. 『本經疏證』에서는 精血津液을 유통시킨다고 표현하였다.

『本經疏證·石膏』의 내용을 통해 石膏가 辛味를 지니고 있어서 발산하는 효력을 발휘하여 위아래로 승강이 잘 될 수 있게 소통시키며, 石膏라는 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돌기름이 지닌 윤택함이 津液의 소통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石膏가 津液을 소통하는 방식은 돌기름의 윤택함으로 津液의 灌溉와 輸送을 연결함으로써이다. 앞의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내용에 의거하면 石膏는 위로 뭉쳐진 것을 泄陽通陰하여 下輸함으로써 陰이 제자리로 돌아와 津液의 灌溉와 輸送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津液을 소통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麻黃과 石膏가 모두 津液을 소통시키려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本草綱目』의 麻黃 發明에서 “津液은 汗이고, 맑은 血이다. 營分에 있으면 血이 되고, 衛分에 있으면 땀이 된다. 무릇 寒邪가 營分을 傷해서 營血이 안에서 澁하여 밖으로 衛分과 통하지 않으면 衛氣가 막혀서 津液이 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땀이 없고 發熱하면서 憎寒하는 것이다. …中略… 대개 皮毛가 밖으로 막히면 邪熱이 안을 攻하여 肺氣가 膈鬱하게 된다. 그러므로 麻黃·甘草를 桂枝와 함께 써서 營分の 邪氣를 끌어내서 肌表로 達하게 하고, 杏仁을 佐藥으로 하여 肺를 泄해서 氣를 이롭게 한다. 땀이 난 후에 大熱이 없으면서 喘하면 石膏를 더한다.”⁴⁵⁾라고 했다. 이는 營分이 寒邪에 의해 손상되어 營血이 정체되고 그 결과 땀이 나오지 않을 때 麻黃을 써서 營血의 정체를 풀어 衛分과 소통시켜 津液을 행하게 하여 邪氣가 땀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 津液의 소통과 관련된다.

또한 『本草綱目』의 石膏 發明에서 “張元素가 이르기를, 石膏는 性이 寒하고 味가 辛하면서 淡하며, 氣味가 모두 薄하고 體가 重하면서 沈하여 내려가고 陰이 되니, 陽明經의 大寒한 藥物이다. 陽明經의 頭痛과 牙痛을 잘 다스리고, 消渴中暑潮熱을 멎게 한다.”⁴⁶⁾라고 했다. 이는 石膏가 울체된 熱을 흘려서

43)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麻黃氣味輕清, 能徹上徹下徹內徹外, 故在裏則使精血津液流通, 在表則使骨節肌肉毛竅不閉, 在上則欬逆頭痛皆除, 在下則癥堅積聚悉破也.”

44)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蓋惟其寒, 方足以化邪熱之充斥, 惟其辛, 方足以通上下之道路, 惟其澤, 方足以聯津液之灌輸, 惟其重, 方足以攝浮越之亢陽.”

45)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津液爲汗, 汗卽血也. 在營則爲血, 在衛則爲汗. 夫寒傷營, 營血內澀, 不能外通於衛, 衛氣閉固, 津液不行, 故無汗發熱而憎寒. …中略… 蓋皮毛外閉, 則邪熱內攻, 而肺氣膈鬱. 故用麻黃甘草同桂枝, 引出營分之邪, 達之肌表, 佐以杏仁泄肺而利氣, 汗後無大熱而喘者, 加以石膏.”

46)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元素曰, 石膏性寒, 味辛而淡, 氣味俱薄, 體重而沈, 降也, 陰也, 乃陽明經大寒之藥. 善治本經頭痛

누설시켜 陰分과 소통하게 하여 津液을 생성되게 함으로써 消渴, 中暑, 潮熱 등의 증상을 멎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 津液의 소통과 관련된다.

『神農本草經』에서는 津液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麻黃이 發表出汗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麻黃이 通腠理한다고 한 것이 津液의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神農本草經』에서 石膏가 口乾舌焦不能息을 主治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石膏가 止消渴煩逆하며 三焦大熱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 石膏의 泄陽通陰의 과정을 통한 津液의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上記한 내용을 통해 麻黃과 石膏가 모두 津液을 소통시키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멎친 것을 풀어냄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내용을 통해 陰陽이 相爭할 때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陽이 결취되어 陰이 산만해지고, 陽이 위로 멎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麻黃으로 發陽하여 陰分에 결취된 陽을 풀어주고, 石膏로 泄陽通陰하여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轉輸되게 하여 자기 자기로 되돌아가면 위쪽에 멎친 것이 풀어지니, 麻黃과 石膏는 함께 써서 멎친 것을 풀어낸다고 할 수 있다.

麻黃과 石膏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陰陽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함께 써서 멎친 것을 풀어내기도 하고, 개별 약재를 살펴보았을 때도 멎친 것을 풀어내는 유사한 효능이 있는데, 여기서 멎친 것이라고 함은 水飲·氣結·熱結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大黃처럼 積聚를 깨뜨리거나 瘀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⁷⁾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牙痛, 止消渴中暑潮熱.”

47) 『神農本草經』에서 麻黃의 효능에 대해 ‘破癥堅積聚’라고 했고, 石膏의 主治에 대해 ‘腹中堅痛’이라고 했으나, 石膏의 ‘腹中堅痛’을 치료함에 大黃이 血分에 들어가 蕩滌腸胃하고 推陳致新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麻黃과 石膏의 유사성을 말할 때 積聚를 깨뜨리거나 瘀血을 깨뜨리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麻黃은 表를 다스릴 뿐 아니라 表를 통해서 分消해야 할 裏病에도 쓴다. …中略…, 烏頭湯으로 風을 다스리는 것과 射干麻黃湯·厚朴麻黃湯으로 咳를 다스리는 것과 甘草麻黃湯·文蛤湯으로 水를 다스리는 것은 表證이 없으니, 表證이 없는데도 麻黃을 쓴 것은 『本經』에서 말한 ‘止咳逆上氣 破癥堅積聚’이다. 하지만 이른바 表를 통해서 分消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기침하면서 上氣하고 목구멍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하고, 기침하면서 脈浮하다고 한 것은 病이 肺에 모인 것이다. 肺는 皮毛와 습하니 皮毛로 排泄하는 것이 肺病을 내보내는 것이다. ‘裏水’라고 한 것과 嘔吐한 다음에 渴症으로 물을 마시려 하고 脈緊하며 頭痛하는 것은 병이 여전히 上과 皮毛에 있는 것이니, 風寒과 다르지 않다.”⁴⁸⁾ 『本經疏證·麻黃』

『本經疏證·麻黃』의 上記 내용을 통해 麻黃이 表病이 없는 상황에서 水飲과 같이 몸속에 津液이 정체됨으로 인해 생기는 병리적 산물을 分消法, 즉 땀과 소변으로 나누어 내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麻黃이 멎친 것을 풀어내는 특성을 지녔음을 말한다.

“특히 『本經』의 ‘腹中堅痛’과 『別錄』의 ‘腸胃中結氣’ 및 ‘腹脹’은 熱이 겨우 散漫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다. 熱邪가 이미 盛해서 內外가 서로 연결되어 오래도록 풀리지 않으면 어찌 氣와 멎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잠시 散漫하지만 결국에는 脹滿하고 堅痛하게 된다. 하지만 腹中堅痛이라고 한 것과 結氣腹脹이라고 한 것은 아직 滓穢와 서로 멎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니, 그래도 石膏로 풀 수 있다. 만약 解肌發汗하지 않았는데 땀이 저절로 나고, 腹中滿

48)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麻黃非特治表也. 凡裏病可使從表分消者, 皆用之. …中略…, 若烏頭湯之治風, 射干麻黃湯厚朴麻黃湯之治欬, 甘草麻黃湯文蛤湯之治水, 則無表證矣. 無表證而用麻黃, 則本經所謂止欬逆上氣破癥堅積聚者. 然所謂從表分消者謂何. 曰欬而上氣, 喉中水雞聲, 曰欬而脈浮, 是病聚於肺, 肺者皮毛之合, 從皮毛而泄之, 所以分消肺病也. 曰裏水, 曰吐從渴欲得水, 脈緊頭痛, 是病仍在上及皮毛, 與風寒不殊矣.”

痛하며 小便이 自利하다면 그 熱이 이미 滓穢와 朧친 것이니 承氣湯이 아니면 功을 이루지 못한다. 石膏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⁴⁹⁾ 『本經疏證·石膏』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肺脹으로 기침하고 上氣하면서 喘息하고 脈浮한 것은 모두 小青龍湯證이고, 煩躁 하나만 더해지면 小青龍加石膏湯證이다. 大靑龍湯의 不汗出而煩躁, 白虎湯의 大煩渴不解, 竹皮大丸의 中虛煩亂을 살펴보면 石膏는 煩을 위해서 있는 것 같다. 하지만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石膏를 쓴 11개의 處方에 이것과 부합되는 것이 겨우 4개이니, 煩하지 않는데도 쓴 것이 어찌서 많은가? 무릇 陰氣가 적어서 陽氣가 갑자기 勝하고, 外에 끼고 있는 것이 있으며 內로 虧損된 것이 있고, 胃에 모이거나 혹은 心을 犯하면 煩이 된다. 煩의 유래가 하나가 아니고, 본래 石膏가 主하는 것도 아니니, 暴勝한 陽을 化해서 胃에 朧친 것을 풀어주는 것이 煩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⁵⁰⁾ 『本經疏證·石膏』

『本經疏證·石膏』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石膏가 泄熱하여 氣分에 朧쳐있는 熱을 배설시켜 腹中堅痛과 結氣腹脹을 치료함을 확인했는데, 이는 石膏가 朧친 것을 풀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다만 石膏는 氣分에 작용하여 熱이 氣와 더불어 朧친 氣結이나 熱結을 풀어내며, 血分에 들어가 積聚를 없애는 大黃과는 차이가 있다.⁵¹⁾

『本經疏證·石膏』의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石膏가 煩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陰氣不足으로 갑자기 勝해진 陽을 化하여 胃에 朧친 것을 풀어줌으로써 煩證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石膏가 胃熱 등으로 朧친 것을 풀어내는 효능이 있음을 말한다.

『本草綱目』의 麻黃 發明에서 “風寒의 邪氣는 모두 皮毛를 통해서 들어왔다. 皮毛는 肺와 合한다. 肺는 衛氣를 主하여 온몸을 싸서 固고 있는데 하늘을 닮았다. 이 證이 비록 太陽에 속하지만 사실은 肺가 邪氣를 받은 것이다. 그 證이 때때로 ‘面赤拂鬱’·‘咳嗽有痰’·‘喘而胸滿’을 겸하는데 肺病이 아닌가?”⁵²⁾라고 했다. 이는 麻黃이 肺가 邪氣를 받아 나타나는 面赤拂鬱, 咳嗽有痰, 喘而胸滿을 치료함을 설명한 것이니, 肺經의 火鬱로 인하여 痰이 생성되고, 朧쳐 있는 痰을 發汗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기에 朧친 것을 풀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本草綱目』의 石膏 發明에서 “李杲가 이르기를, 石膏는 足陽明藥이다. 그러므로 仲景이 傷寒陽明證으로 몸에서 열이 나면서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를 다스렸다. 몸의 앞쪽은 胃經이고, 가슴의 앞쪽은 肺가 있는 곳이니, 邪氣가 陽明에 있으면 肺가 火의 制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辛寒한 藥物로 肺氣를 淸해야 하는데, 그래서 白虎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⁵³⁾라고 했다. 이는 石膏가 足陽明胃經에 邪氣가 있을 때 泄熱하여 肺氣를 淸하게 함을 설명한 것으로 熱이 朧친 것을 풀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49)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惟本經之腹中堅痛, 別錄之腸胃中結氣及腹脹, 似熱不儘散漫矣. 夫熱邪既盛, 內外相連, 久延不解, 焉能不與氣結. 故暫時散漫, 繼遂脹滿而堅痛, 然曰腹中堅痛, 曰結氣腹脹, 明其尙未與滓穢相結, 猶可解以石膏也. 若不待解肌發汗而汗自出, 腹中滿痛小便自利, 則其熱已與滓穢搏聚, 非承氣不爲功矣, 石膏又烏能爲.”

50)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心下有水氣, 肺脹欬, 上氣而喘, 脈浮, 皆小青龍湯證也. 多一煩躁, 則爲小青龍加石膏湯證. 覈之以大靑龍湯之不汗出而煩躁, 白虎湯之大煩渴不解, 竹皮大丸之中虛煩亂, 是石膏爲煩設矣. 但傷寒金匱用石膏者十一方, 此纔得其四, 其不煩而用者, 何多也. 夫陰氣偏少, 陽氣暴勝, 外有所挾, 內有所虧, 或聚於胃, 或犯於心, 乃爲煩. 煩之由來不一, 本非石膏所主, 化其暴勝之陽, 解其在胃之聚, 非治煩也.”

51)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13-433. “大黃은 血閉를 通하게 하고, 土中에

火用을 貫通시키니, 陰道에서는 陰道가 通하고, 橫絡에서 是 橫絡이 通하며, 腸胃에서는 停滯가 내려간다. 『本經』에서 그 功을 나타내기를 ‘瀉滌腸胃·推陳致新·通利水穀·調中化食·安和五臟’이라고 했으니 어찌 과장이 있겠는가.”

52)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然風寒之邪, 皆由皮毛而入. 皮毛者, 肺之合也. 肺主衛氣, 包羅一身, 天之象也. 是證雖屬乎太陽, 而肺實受邪氣. 其證時兼面赤拂鬱, 咳嗽有痰, 喘而胸滿諸證者, 非肺病乎.”

53)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臯曰, 石膏, 足陽明藥也. 故仲景治傷寒陽明證,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 身以前, 胃之經也, 胸前, 肺之室也. 邪在陽明, 肺受火制, 故用辛寒以淸肺氣, 所以有白虎之名.”

『神農本草經』에서 麻黃이 止咳逆上氣하고 破癥堅積聚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麻黃이 洩邪惡氣한다고 한 것이 뭉친 것을 풀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神農本草經』에서 石膏가 腹中堅痛과 心下逆氣를 치료하고, 除邪鬼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石膏가 腸胃中膈熱과 腹脹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 뭉친 것을 풀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上記한 내용을 통해 麻黃과 石膏가 모두 水飲·氣結·熱結 등의 뭉친 것을 풀어내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낸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내용을 통해 石膏로 泄熱通陰하여 날뛰는 陽의 세력을 덜어내어 陰과 陽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면서도 陰의 세력이 방자해지지 않게 麻黃을 써서 울체되었다가 우쥌 일어나는 陰으로 하여금 陽을 따라서 누설시키며 이는 發汗의 과정으로 通陰이라고 하였는데,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麻黃과 石膏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陰陽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함께 써서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기도 하고, 개별 약재를 살펴보았을 때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한 효능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麻黃은 어떻게 뿔에서 衛로 통하게 하는가? 『本經』에서 麻黃은 苦溫하다고 했는데, 苦味는 地에 있는 陰이고, 陰에서 發하여 陽으로 나온 것이니, 衛分을 소통하는 杏仁이 도와야 陰에서 陽으로 達하게 하는 작용을 이룰 수 있다.”⁵⁴⁾ 『本經疏證·麻黃』

『本經疏證·麻黃』의 上記 내용을 통해 麻黃이 陰

分, 즉 營分에 寒邪로 인하여 응축되고 邪氣와 正氣의 싸움으로 열이 날 때 熱을 이끌어 내고 津液을 끌고 가서 汗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陰陽의 상호 작용, 津液의 소통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

“石膏는 體質이 가장 무겁고 빛이 나며 밝고 윤택하지만, 두드리면 바로 부서져서 별처럼 가루가 되고, 실처럼 세로로 나열되지 하나라도 가로로 나열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 性이 橫溢하는 熱邪를 잘 풀어준다. 대개 차가워야만 邪熱이 그득한 것을 化할 수 있다. …中略…, 麻黃을 쓴 것은 陰으로부터 陽을 통하게 하려는 것이다(從陰通陽). …中略…, 石膏는 縱만 있고 橫은 없으니, 縱은 經을 닮았고, 橫은 絡을 닮았다. 經絡을 함께 통하게 하는 것은 經에만 미치고 絡에는 미치지 않는 것과는 그 優柔와 猛烈이 같지 않다. …中略…, 熱로 인한 것은 陽이 猖狂하여 陰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이니, 陰으로 하여금 陽과 교류하게 하려면 洩熱하지 않고는 不可하다.”⁵⁵⁾ 『本經疏證·石膏』

『本經疏證·石膏』의 내용을 통해 麻黃이 發汗을 통해서 울체된 陰分을 풀어주고 결과적으로 汗이 나와 陽氣가 소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石膏는 鑛物質로 실처럼 세로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 그와 반대되는 橫溢하는 熱邪를 잘 풀어내므로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된다. 石膏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원래 위아래로 升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잘 안되고 가로막혀 橫溢하게 된 熱邪를 石膏가 지닌 광물의 세로 배열의 특성으로부터 氣의 흐름을 상하로 잘 소통될 수 있게 하여 원래의 흐름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54)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雖然麻黃何以能由營通衛. 本經謂麻黃苦溫, 夫苦爲在地之陰, 是發於陰出於陽矣, 猶助以杏仁之疏衛, 乃能遂其由陰達陽之用.”

55)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石膏體質最重, 光明潤澤, 乃隨擊即解, 紛紛星散, 而絲絲縱列, 無一縷橫陳, 故其性主解橫溢之熱邪也. 蓋惟其寒, 方足以化邪熱之充斥, …中略…, 麻黃爲用, 所以從陰通陽. …中略…, 桂枝文理有縱有橫, 石膏則有縱無橫, 縱者象經, 橫者象絡, 經絡並通, 與及經不及絡者, 其優柔猛烈, 自是不同. …中略…, 因熱者, 乃陽猖而陰不與交, 欲使陰交於陽, 非洩熱不可.”

한편 『本草綱目』의 麻黃 發明에서 “대개 皮毛가 밖으로 막히면 邪熱이 안을 공격하여 肺氣가 膈鬱하게 된다. 그러므로 麻黃·甘草를 桂枝와 함께 써서 營分の 邪氣를 끌어내서 肌表로 達하게 하고, 杏仁을 佐藥으로 하여 肺를 泄해서 氣를 이롭게 한다. 땀이 난 후에 大熱이 없으면서 喘하면 石膏를 더한다.”⁵⁶⁾라고 했다. 이는 肺熱이 속에 울체되어 있을 때 麻黃을 써서 發陽, 즉 從陰通陽하여 陰分에 해당하는 營分에 寒邪에 의해 울체된 陽氣를 풀어주어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通陰] 邪氣를 풀어주니,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된 설명이다.

또한 『本草綱目』의 石膏 發明에서 “張元素가 이르기를, 石膏는 性이 寒하고 味가 辛하면서 淡하며, 氣味가 모두 薄하고 體가 重하면서 沈하여 내려가고 陰이 되니, 陽明經의 大寒한 藥物이다. 陽明經의 頭痛과 牙痛을 잘 다스리고, 消渴中暑潮熱을 멎게 한다.”⁵⁷⁾라고 했다. 이는 石膏가 辛寒하면서도 淡味를 지니고 있으며 氣味가 厚하지 않고 薄하지만, 한편으로는 鑛物質의 무거운 성질로써 침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陽明經의 熱證으로 인한 頭痛牙痛과 消渴中暑潮熱 등의 치료에 적용하여 洩熱함으로써 陰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된 설명이다.

『神農本草經』에서 麻黃이 發表出汗하고 去邪熱氣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麻黃이 通腠理, 疏傷寒頭痛한다고 한 것이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神農本草經』에서 石膏가 口乾舌焦不能息을 치료한다고 한 것과 『名醫別錄』에서 石膏가 止消渴煩逆한다고 한 것이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上記한 내용을 통해 麻黃과 石膏가 모두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麻黃과 石膏가 함께 들어가는 方劑에 대한 분석

麻黃과 石膏가 함께 들어가는 方劑는 『傷寒論』에서 총 4개가 나오는데, 麻杏甘石湯·大青龍湯·桂枝二越婢一湯·麻黃升麻湯이고, 『金匱要略』에서는 총 7개가 나오는데, 大青龍湯, 越婢湯·越婢加半夏湯·越婢加朮湯·小青龍加石膏湯·厚朴麻黃湯·文蛤湯이다. 각각의 方劑의 간략한 내용과 각 方劑 내의 麻黃과 石膏의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앞서 本草書들을 통해 살펴본 麻黃과 石膏의 상호 유사한 특성이 실제 張仲景이 제시한 처방들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麻杏甘石湯

麻杏甘石湯은 發汗시키거나 瀉下시킨 후에 다시 桂枝湯을 쓸 수가 없고, 땀이 나면서 숨을 헐떡이고 바깥으로는 큰 열이 없을 때 치료하는 方劑⁵⁸⁾, 麻黃 4兩, 杏仁 50개, 炙甘草 2兩, 石膏 半斤(=8兩)으로 구성되고, 辛涼疏表하고 淸肺平喘하여 外感風邪로 인한 肺熱咳喘證을 다스린다. 본 方劑는 外感 風邪가 裏로 들어가 化熱하여 肺를 막아 肺가 宣降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風熱이 表를 침습함에 表邪가 풀리지 않고 裏로 들어가거나 혹은 風寒의 邪氣가 울체되어 熱로 변화되어 裏로 들어가 邪熱이 내외로 가득하므로 身熱이 풀리지 않고 舌苔가 黃하며 脈浮數하고 熱이 肺에서 울체되어 肺가 宣降 작용을 잃어버리므로 咳逆氣急하고 심하면 코를 벌름거리고, 熱邪가 津液을 손상시켜서 口渴하며, 熱性은 升散하여 津液을 뿜박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므로 땀이 있게 된다. 麻黃은 辛甘溫하여 宣肺平喘하고 解表散邪하는데, 그 辛散하는 작용이 表邪의 未盡함을 겹쳐서 다스리고, 肺中の 熱邪가 外達하는 데에 유리하

56)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蓋皮毛外閉, 則邪熱內攻, 而肺氣膈鬱. 故用麻黃甘草同桂枝, 引出營分之邪, 達之肌表, 佐以杏仁泄肺而利氣. 汗後無大熱而喘者, 加以石膏.”

57)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元素曰, 石膏性寒, 味辛而淡, 氣味俱薄, 體重而沈, 降也, 陰也, 乃陽明經大寒之藥. 善治本經頭痛牙痛, 止消渴中暑潮熱.”

58)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09-112. “發汗後, 不可更行桂枝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 “下後, 不可更行桂枝湯, 若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

다. 石膏는 辛甘大寒하여 肺胃의 熱을 清泄시켜서 生津하고, 辛散解肌하여서 透邪한다. 두 약 중 하나는 辛溫하고 하나는 辛寒하며, 하나는 宣肺를 위주로 하고, 하나는 清肺를 위주로 하여 모두 능히 밖으로 邪氣를 透達할 수 있는데, 합쳐서 쓰면 相反된 가운데 相輔하는 뜻이 있다. 石膏는 麻黃보다 두 배로, 본 方劑가 辛涼劑가 되게 하고, 麻黃이 石膏를 얻으면 宣肺平喘하면서 열을 돕지 않고, 石膏가 麻黃을 얻으면 清解肺熱하면서도 찬 성질로 막히지 않고 또한 서로 제어함이 쓰임이 된다.⁵⁹⁾ 위의 설명은 麻杏甘石湯과 관련한 교과서식 설명으로 麻黃과 石膏의 配伍가 寒熱로 상반되지만 서로 제어하는 것이 오히려 쓰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本經疏證』에서는 麻杏甘石湯에 들어간 麻黃과 石膏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麻黃 항목에서 有汗에 麻黃을 쓴 方劑를 말할 때 麻杏甘石湯을 언급했는데, 麻杏甘石湯은 陰과 陽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陽이 結聚하여 陰이 散漫하고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않음에 麻黃으로 發陽하여 陰分에 陽이 결체된 것을 풀어 陽이 선포되게 하고, 石膏로 泄陽通陰하여 陰이 아래로 轉輸되게 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다.⁶⁰⁾ 여기서 말하는 泄陽通陰은 앞에서 泄熱通陰이라고 한 것과 같은 뜻으로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전수되지 않음에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陰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麻杏甘石湯에서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麻黃으로 發陽하여 陰分에 陽이 결체된 것을 發揚하여 陰이 산만하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하고, 石膏로 泄陽하여 위쪽에 뭉친 것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陰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 교과서식의 寒熱이 相反되고 서로 제어하는 것이 오히려 쓰임이 된다고 하는 설명보다는 陰陽의 상호 작용으로 肺熱이 뭉친 것을 해소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

을 뚜렷하게 설명한 방식으로 方劑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大青龍湯

大青龍湯은 太陽中風으로 脈이 浮緊하고 發熱惡寒하며 몸이 아프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煩躁한 경우나 傷寒에 脈이 浮緩하고 몸은 아프지 않고 무겁다가 잠깐 가벼워질 때가 있으며 少陰證이 없는 경우나 溢飲으로 四肢와 顔面이 부어오르고 땀이 나지 않고 煩躁가 있으며 팔다리에 동통이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方劑⁶¹⁾, 麻黃 6兩, 桂枝·甘草 각각 2兩, 杏仁 40개, 生薑 3兩, 大棗 12개, 계란만한 크기의 石膏⁶²⁾로 구성되어 發汗解表하고 清裏熱하여 外感風寒으로 裏에 鬱熱證이 있는 것과 溢飲을 다스린다. 惡寒發熱, 頭身疼痛, 無汗, 脈浮緊은 風寒이 束表하여 衛陽이 막힘을 당하고 營陰이 울체되어 毛竅가 閉塞됨으로 말미암아 風寒表實證에 속하는 것이 확실하다. 表寒證에 煩躁와 口渴 증세가 함께 나타나면 陽盛한 체질과 연관되는데, 밖으로 風寒을 받아 寒邪가 비교적 심하고 表邪가 鬱閉된 것이 비교적 엄중하면 陽氣를 안에서 울체되게 하여 熱이 되며, 熱邪가 津液을 손상시키면 口渴하고, 열이 宣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胸中을 요란시켜서 煩이 되며, 煩이 심하면 躁하다. 본 方劑는 麻黃湯에서 麻黃과 甘草를 두 배로 쓰고, 杏仁의 용량은 줄이며, 다시 石膏와 生薑과 大棗를 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麻黃湯과 마찬가지로 風寒束表하지만, 본 方劑의 證은 表가 폐색됨이 비교적 심하여 風寒表實的 重證이 되고, 땀이 없는 것은 熱邪로 津液을 손상한 것과

61)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74-80.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之. 服之則厥逆, 筋惕肉瞤, 此爲逆也.”, “傷寒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青龍湯發之.”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410-412. “病熱飲者 當發其汗 大青龍湯主之.”

62) 계란 만한 크기(鷄子大)의 石膏는 夏志強의 논문에서 “계란 만한 크기 石膏의 중량은 91.4997g으로 大青龍湯에서 麻黃과 石膏의 비율은 1:1에 가깝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兩으로 환산하면 6兩 정도에 해당한다. 夏志強 張仲景《傷寒雜病論》中石膏的應用規律研究. 成都中醫藥大學. 2020. p.17.

59) 李飛 主編. 方劑學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13.

60)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연관된다. 처방 중 麻黃·桂枝·生薑은 辛溫한 성질을 지녀 發汗하고, 麻黃을 두 배로 쓰면 發汗하는 힘이 더욱 세며 腠理를 열어주는 功도 매우 현저해지고, 세 약을 합쳐서 쓰면 表를 열어 주고 폐색된 것을 열어서 風寒을 흠고 겸하여 안에 울체된 熱을 땀을 따라서 泄하게 한다. 甘草를 두 배 쓰고, 아울러 大棗과 生薑을 함께 배오하여 脾胃를 補하고, 陰血을 더하여 攄의 근원을 돕는다. 石膏를 더하여 裏熱을 淸解하고 아울러 鬱熱을 透達하며, 喘逆의 증상은 없으므로 杏仁의 용량은 줄이되 麻黃과 함께 써서 肺氣를 宣降하고, 肺氣가 펼쳐지면 腠理가 소통되어 表邪가 밖으로 나가는 데에 有利하다. 7가지 약물을 함께 쓰면 능히 한 번 攄를 내어서 表裏雙解하는 효능을 거둘 수가 있다.⁶³⁾ 大靑龍湯과 관련하여 中國의 方劑學 책에서는 上記와 같이 麻黃으로 發汗解表하고, 石膏로 淸裏熱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는 고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經疏證』에서는 大靑龍湯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앞의 麻黃과 石膏의 유사 효능 두 번째 뭉친 것을 풀어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石膏가 들어가면서 煩을 다스리는 方劑들을 언급할 때 大靑龍湯이 나오는데, 煩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暴勝한 陽을 化해서 胃에 뭉친 것을 풀어준다고 했다.⁶⁴⁾ 또한 앞의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麻黃이 發陽함은 陰分에 陽이 결취되어 있는 것을 發揚하는 것이고, 石膏로 泄陽함은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전수되지 않음에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麻黃으로 發陽하고, 石膏로 泄陽한 결과 麻黃은 결과적으로 邪氣가 攄를 통해 배출이 되어 通陰이 되었고, 石膏도 泄陽을 통해 위쪽에 뭉쳐있던 陰이 下輸되어 제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안정을 되찾거나 陰으로 하여금 陽과 交通시켜 陽의 맹렬함을 가라앉히는 점에서 비슷하며, 이러한 결과는 大靑龍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

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靑龍湯에 쓰인 麻黃과 石膏가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뭉친 것을 풀어냈다고 할 수 있다.

3) 桂枝二越婢一湯

桂枝二越婢一湯은 太陽病에 發熱惡寒하되 熱이 많고 寒이 적으며, 脈이 微弱한 경우는 表實證이 없어진 것이니 다시 攄를 내어서는 안 되는 表鬱裏熱에 쓸 수 있는 少汗 처방으로, 桂枝·芍藥·甘草 각각 18銖, 生薑 1兩 3錢, 大棗 4개, 麻黃 18銖, 石膏 24銖로 구성되어 있다.⁶⁵⁾ 桂枝二越婢一湯은 桂枝湯 분량의 4분의 1과 越婢湯 분량의 8분의 1을 합친 것으로 그 비율이 2:1이 되어 桂枝二越婢一湯이라고 했는데, 桂枝湯은 表邪를 밖으로 풀어주고, 越婢湯은 『金匱要略』에 기재된 麻黃, 石膏, 杏仁, 大棗, 炙甘草 등으로 구성된 辛涼劑로 裏熱을 淸泄하고 鬱陽을 發越한다. 두 方劑의 合方은 解表淸裏의 輕劑가 된다.⁶⁶⁾ 中國의 『傷寒論』 책에서는 桂枝二越婢一湯을 구성하고 있는 越婢湯에 대하여 위와 같이 麻黃으로 解表하고, 石膏로 淸裏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는 고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本經疏證』에서는 桂枝二越婢一湯에 대하여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桂枝二越婢一湯의 無陽을 설명할 때 脈이 반대로 微弱한 것은 陽不足이 아니라 表陽이 안으로 잠복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標熱을 洩하여 陰中에 內伏한 陽을 통하게 하지 않으면 營衛가 어떻게 고르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桂枝의 攄를 취해 解外하고, 越婢의 하나를 취해 中을 통하게 한 것이 桂枝二越婢一湯의 의미이다라고 했다.⁶⁷⁾ 앞의 麻黃

65) 류두저우 지음.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傷寒論講義 攷求. 물고기술. 2014. pp.105-106. “太陽病,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無陽也, 不可發汗. 宜桂枝二越婢一湯.”

66) 熊曼琪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69-72.

67)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然則桂枝二越婢一證謂之無陽者, 又當作何解. 夫發熱者, 太陽之標, 惡寒者, 太陽之本, 熱多寒少,

63) 李飛 主編. 方劑學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141-142.

64)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과 石膏의 유사 효능 중 세 번째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설명에서 麻黃이 發汗을 통해 율체된 陰分을 풀어 陽氣를 소통시키고, 石膏가 橫溢하는 熱邪를 잘 풀어내어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桂枝二越婢一湯도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면의 機轉에는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張志聰은 桂枝二越婢一湯에 대하여 “이는 表陽이 肌肉으로부터 裏分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桂枝湯을 2배로 해서 肌肉을 풀어주고, 越婢湯을 1배로 해서 表陽이 內陷하는 것을 發越하는 것이다. 대개 石膏는 質이 무거워서 裏分으로 들어가며 무늬와 성긴 바가 肌肉을 뜻하고, 맛은 辛甘하니 發散하는 성질이 있어서 바로 裏分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發越시킨다. 脾는 陰中의 至陰에 속한다. 麻黃을 심었던 땅은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으니, 至陰이 있는 下部에 陽氣를 통하게 하고 發泄케 하며, 石膏를 도와 기운을 이끌어 三陰으로 바로 가서 肌表까지 透達하게 한다.”⁶⁸⁾라고 하였다. 張志聰의 주석을 통해서도 桂枝二越婢一湯을 구성하고 있는 麻黃과 石膏가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麻黃升麻湯

麻黃升麻湯은 傷寒病을 크게 瀉下시킨 뒤에 寸脈이 沈遲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咽喉가 不利하고 膿血을 내뿜고 泄痢가 몇지 않는 병증을 치료하는 方劑로⁶⁹⁾, 麻黃 2兩半, 升麻·當歸 각각 1兩1分, 知母·黃

芩·萎蕤 각 18銖, 石膏·白朮·乾薑·芍藥·天門冬·桂枝·茯苓·甘草 각각 6銖로 구성되었다. 본방은 麻黃·升麻를 君藥으로 하여 용량이 가장 많으며 發越鬱陽하고, 石膏·知母·黃芩은 瀉火解毒하여 肺熱을 내리고, 桂枝·乾薑은 溫運脾陽하고 하부의 찬 기운을 없애주니 두 약은 한편으로 상부의 열을 내리고 한편으로는 하부의 찬 기운을 덥혀주어 清肺溫脾하므로 臣藥으로 삼는다. 天門冬·萎蕤·當歸·芍藥은 清金潤肺·滋陰養血하므로 佐藥으로 삼는다. 白朮·茯苓·炙甘草는 健脾益氣하며 使藥으로 삼는다. 본방은 清上溫下·和中·發越鬱陽의 작용이 있다.⁷⁰⁾ 中國의 『傷寒論』 책과 『상한론용어사전』에서는 麻黃升麻湯에 대해 위와 같이 麻黃으로 發越鬱陽하고, 石膏로 清熱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고 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經疏證』의 麻黃 항목의 설명에서 “누가 이르기를, 麻黃이 外寒을 다스리는 것은 맞지만, ‘外寒이 身中의 水氣와 서로 응해서 病이 된다.’라고 한다면 佐使藥으로 寒藥을 쓴 경우도 있지 않는가? 이르기를, 麻黃을 쓸 때 寒藥으로 佐使를 삼은 것은 大靑龍湯·麻杏甘石湯·越婢湯·古今錄驗續命湯·文蛤湯이 모두 石膏를 쓰고, 麻黃升麻湯이 知母·石膏·黃芩을 쓰고, 桂枝芍藥知母湯이 知母를 쓰고 千金三黃湯이 黃芩을 쓴 경우이다. 그러나 大靑龍湯·古今錄驗續命湯·千金三黃湯은 風寒을 다스리고, 越婢湯은 風水를 다스리고, 文蛤湯은 水氣를 다스리고, 桂枝芍藥知母湯은 風濕을 다스리니, 外寒과 水氣가 서로 관련되어 하나가 된 것이지만, 유독 麻杏甘石湯과 麻黃升麻湯은 外寒이 未盡하고 裏는 이미 化熱한 것이니, 水氣와 서로 간섭한 것은 아니다.”⁷¹⁾라고 하여

標盛本微矣。而脈反微弱，則非因陽不足，乃表陽內伏也。表陽之所以內伏，正爲其本寒將盡，無事與相拒於外耳，故曰無陽。然陽者，津液之所從化，汗之所由出也。不洩其標熱，而從陰中通其內伏之陽，表氣於何而和，營衛於何而調，故取桂枝之二以解外，取越婢之一以通中，此其義也。”

68) 陳柱杓 編譯.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612-613. “此表陽從肌入裏，故宜桂枝二以解肌，越婢一以發越表陽之內陷。蓋石膏質重入裏，紋理疏而象肌，味辛甘而發散，直從裏而外越者也。脾爲陰中之至陰，植麻黃之地，冬不積雪，能通泄陽氣于至陰之下，籍石膏之導引，直從裏陰而透發于肌表也。”

69)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02-505. “傷寒六七日，大下後，寸脈沈而遲，手足厥逆，下部脈不至，咽喉不利，唾膿血，泄利不止者，爲難治，麻黃升麻湯主之。”

70) 陳柱杓 編譯.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p.661-664.

71)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或謂麻黃治外寒固矣。然必謂外寒與身中水氣相應爲病，則不有佐使用寒藥者乎。曰凡用麻黃以寒藥爲佐使者，大靑龍湯，麻黃杏仁甘草石膏湯，越婢湯，古今錄驗續命湯，文蛤湯，皆用石膏。麻黃升麻湯，用知母石膏黃芩。桂枝芍藥知母湯，用知母。千金三黃湯，用黃芩。然大靑龍湯，古今錄驗續命湯，千金三黃湯，治風寒。越婢湯，治風水。文蛤

麻黃이 寒藥인 石膏를 佐使藥으로 사용하였음을 말하였고, 麻黃升麻湯은 外寒이 미진하고 裏는 이미 化熱한 것이니, 水氣와 서로 간섭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앞에서 麻黃과 石膏의 상호 유사성을 설명할 때 麻黃이 發汗을 통해서 울체된 陰分을 풀어주고 결과적으로 땀이 나와 陽氣가 소통되며, 石膏는 鑛物質로 실처럼 세로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 그와 반대되는 橫溢하는 熱邪를 잘 풀어내므로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공통점이 있음을 언급했는데, 麻黃升麻湯에서도 麻黃과 石膏가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면의 機轉에는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越婢湯

越婢湯은 風水로 惡風하여 온몸이 붓고, 脈浮하며 갈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自汗이 나며 큰 열이 없는 증상을 치료하는 方劑로⁷²⁾, 麻黃 6兩, 石膏 半斤,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方劑의 證은 水邪가 熱을 끼고서 이른 證이므로 치료는 마땅히 發汗利水하고 겸하여 熱邪를 淸하게 한다. 처방 중에 麻黃을 重用하여 發汗利水の 功을 취함으로써 肌表의 水濕을 땀을 따라서 제거하고, 안에 정체되어 있는 水濕을 아래쪽으로 나가게 한다. 또한 肺氣를 열어 宣發시키는 능력을 취하여 肺의 宣發肅降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水道를 通調하여 水濕을 없애는 데에 유리하게 한다. 生薑은 水濕을 宣散하고, 石膏는 鬱熱을 淸解하며, 甘草와 大棗는 補中益氣하여서 培土勝濕한다.⁷³⁾ 中國의 『金匱要略』 책과 方劑學 책에서는 越婢湯에 대하여 위와 같이 麻黃으로 發汗하고 石膏로 淸熱한다는 이분법적인 설명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本經疏證』에서는 越婢湯에 쓰인 麻黃과 石膏에 대해 다른 방식을 취하여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麻黃이 石膏를 얻으면 發散이 맹렬하지 않다고 하면서 麻杏甘石湯과 越婢湯처럼 땀이 나는 상황에서도 麻黃을 쓴 예시를 들면서 麻黃을 쓴 이유는 從陰通陽이고, 石膏를 쓴 이유는 陰과 陽을 소통시키기 위해 泄熱을 해야 한다고 했다.⁷⁴⁾ 이는 石膏로 泄熱通陰하여 熱을 누설시킴으로써 陰과의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麻黃으로 從陰通陽하여 陰分の 울체된 陽을 發陽하여 發汗함으로써 陰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자 함이니, 이는 越婢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은 表에 작용하여 發汗하고, 石膏는 裏에 작용하여 淸熱한다는 설명에 비하여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越婢湯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麻黃 항목에서 有汗에 麻黃을 쓴 方劑를 말할 때 越婢湯을 언급했는데, 陰陽相爭 중 陽이 陰을 이겨 陽이 結聚하여 陰이 散漫하고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않은 상황에서 麻黃으로 陽을 선발하지 않으면 陽이 선포될 수가 없고, 石膏를 써서 泄陽通陰하지 않으면 陰이 마침내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⁷⁵⁾ 여기서 말하는 泄陽通陰은 앞에서 泄熱通陰이라고 한 것과 같은 뜻으로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전수되지 않음에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越婢湯에서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麻黃으로 發陽함으로써 陽이 陰分에 걸춰진 것을 發揚시켜 陰이 산만하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하고, 石膏로 泄陽하여 위쪽에 뭉친 것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전수되게 하여 陰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는 越婢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이 소통되고 뭉친 것을 풀어냈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좀 더 통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湯, 治水氣, 桂枝芍藥知母湯, 治風濕, 仍係外寒水氣交關爲害, 惟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升麻湯, 外寒未盡, 裏已化熱, 絕不與水氣相干.”

7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410-412. “風水惡風, 一身悉腫, 脈浮不渴, 續自汗出, 無大熱, 越婢湯主之.”

73) 李飛 主編, 方劑學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29.

74)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75)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6) 越婢加半夏湯

越婢加半夏湯은 肺脹으로 기침이 나와 숨이 답답하고, 喘息 때문에 眼球가 튀어나올 것 같으며, 脈이 浮하고 大한 증상을 치료할 때 쓰는 方劑로⁷⁶⁾, 麻黃 6兩, 石膏 半斤,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5개, 半夏 半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方劑의 證은 평상시에 飲邪가 있어서 胸中을 막고 있고 다시 風熱을 감수하여 內飲을 유발하여 內外로 邪氣가 합쳐져 肺氣脹滿하고 咳嗽氣逆하며, 水飲이 熱을 끼고 上逆하여 肺氣가 불리하므로 喘急하고 두 눈이 돌출된 형상이 있게 된다. 처방 중 麻黃과 石膏를 서로 配伍하여서 散飲淸熱하고, 生薑과 半夏는 散飲降逆하며, 甘草와 大棗는 調和諸藥하고 安中補脾한다.⁷⁷⁾ 中國의 『金匱要略』 책에서는 越婢加半夏湯 중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여서 散飲淸熱한다고 했는데, 이는 麻黃으로 散飲하고 石膏로 淸熱한다는 이분법적인 설명방식이다.

그러나 『本經疏證』에서는 越婢加朮湯에 쓰인 麻黃과 石膏에 대해 다른 방식을 취하여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喘證을 다스리는 小青龍加石膏湯·木防己湯·麻杏甘石湯과 함께 越婢加半夏湯을 논하면서 이 4개의 方劑에 들어가는 石膏가 喘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약재 같지만 실제로는 熱이 속에서 왕성하여 氣가 상부에서 疇박을 받는 것이니, 石膏가 다스리는 것은 속에 있는 熱을 化하여 氣가 저절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지 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⁷⁸⁾, 이는 越婢加半夏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뭉친 것을 풀어내는 유사성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石膏 항목에서 飲證을 설명하면서 飲은 水가 두둑이 없어서 처소를 따라 제멋대로 흘러넘치는 것과 달리 반드시 臟腑에 붙은 후에 질환이 되는데, 越婢加半夏湯이 다스리는 肺脹病은 上中下 중 上에 붙어서 질병이 되는 것이고, 上에 붙은 것은 表에 비견될 수 있으므로 麻黃을 썼고, 石膏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했는데⁷⁹⁾, 이는 越婢加半夏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냈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좀 더 통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7) 越婢加朮湯

越婢加朮湯은 裏水로 眼目 및 전신이 누렇게 붓고, 小便이 不利하며, 脈이 沈한 증상을 치료할 때 쓰는 方劑로⁸⁰⁾, 麻黃 6兩, 石膏 半斤, 生薑 3兩, 甘草 2兩, 大棗 15개, 白朮 4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方劑는 發汗行水하고 淸熱除濕한다. 裏水는 當堂皮水여야 하는데, 皮水의 형성은 脾虛하여 水濕을 운화할 수가 없고, 肺氣가 宣發의 작용을 잃어 通調水道하여 下輸膀胱할 수 없어서 水氣가 皮膚 중에 정체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온몸과 얼굴과 눈이 누렇게 붓고 그 脈이 沈한 것은 水氣가 안으로 왕성하여 皮膚를 침범하고 脈氣를 막아 능히 밖으로 고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고, 小便이 不利한 것은 三焦의 氣化가 방해를 받아 水道가 불통하여 水氣가 아래로 膀胱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方劑 중 麻黃과 石膏는 發散水氣하고 겸하여 淸裏熱하며, 甘草·生薑·大棗는 調和營衛하며, 白朮은 健脾利水하여 麻黃과 함께 배오하면 皮膚 중의 水濕을 운행하

7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97-199. “咳而上氣, 此爲肺脹, 其人喘, 目如脫狀, 脈浮大者, 越婢加半夏湯主之.”

7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97-199.

78)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越婢加半夏湯候曰, 肺脹效而上氣, 其人喘, 目如脫狀. 小青龍加石膏湯候曰, 肺脹效而上氣, 煩躁而喘. 木防己湯候曰, 膈間支飲, 其人喘滿, 心下痞堅. 麻杏甘膏湯候曰, 汗出而喘, 無大熱, 是石膏者, 爲喘而設歟. 夫喘有虛有實, 虛者無論, 實者必邪聚於氣, 軒舉不降, 然邪又有不同. 茲四喘者, 皆熱盛於中, 氣被逼於上, 則石膏所主, 乃化其在中之熱, 氣自得下, 非治喘也.”

79)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若夫飲, 則非如水之無畔岸, 可隨處橫溢也, 則必著臟腑而後爲患. 曰效而上氣, 此爲肺脹, 其人喘, 目如脫狀, 脈浮大者, 越婢加半夏湯主之, 此著於上也. 曰膈間支飲, 其人喘滿, 心下痞堅, 面色黎黑, 其脈沈緊, 得之數十日, 醫吐下之, 不愈者, 木防己湯主之, 此著於中者也. 著於上者, 比於表, 故用麻黃. 著於中者, 比於裏, 故不用麻黃, 石膏則皆不可闕者也.”

8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391-394. “裏水者, 一身面目黃腫, 其脈沈, 小便不利, 故令病水. 假如小便自利, 此亡津液, 故令渴也. 越婢加朮湯主之.”

고 함께 發汗利水하며 清泄鬱熱의 작용을 발휘한다.⁸¹⁾ 中國의 『金匱要略』 책에서는 越婢加朮湯에 대하여 越婢湯과 비슷하게 麻黃으로 發汗하고 石膏로 清熱한다는 이분법적인 설명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本經疏證』에서는 越婢加朮湯에 쓰인 麻黃과 石膏에 대해 다른 방식을 취하여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朮 항목에서 越婢加朮湯은 治水하는 方劑이고⁸²⁾, 石膏 항목에서는 『千金方』에서 越婢加朮湯을 쓴 용례를 예로 들면서 肉極을 다스려 熱이 나면 신체의 津이 빠지고 腠理가 열려서 땀이 크게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熱이 속에서 왕성하여 안으로 陰과 화합하지 않고 밖으로 津液을 뿜박해서 쫓아내는 것인데, 다만 陰을 통하게 하려다가 陰이 결국 거스를까봐 두려울 뿐이므로 惡風을 겸하면 湯 속에 附子를 더할 뿐이니,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汗出을 낮게 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는가라고 했는데⁸³⁾, 이는 越婢加朮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냈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좀 더 통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8) 小青龍加石膏湯

小青龍加石膏湯은 肺脹, 즉 喘咳胸滿으로 上逆하며 煩躁, 脈浮하고 心下에 水氣가 있는 병증을 치료하는 方劑로⁸⁴⁾, 麻黃·芍藥·桂枝·細辛·甘草·乾薑 각 3兩, 石膏 2兩, 五味子·半夏 각 半升으로 구성되어 있다. 心下에 평상시 水飲이 있는 宿疾을 앓다가 風寒을 감수하여 본 湯證이 발생하는데 外邪가 表를 뚫으므로 脈浮하고, 水飲이 肺를 적셔서 肺가 宣發肅

降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咳嗽上氣하고 喘息증상이 있다. 飲邪가 울체된 것이 오래되면 熱로 변화되므로 煩躁하다. 小青龍湯은 본래 逐飲解表하는 방제로 表에 風寒이 있고 안에 水飲을 끼고 있는 證을 치료하며, 본 方劑는 小青龍湯證을 갖추고 있으면서 겸하여 煩躁가 있으므로 石膏를 더하여 清裏熱한다. 처방 중 麻黃과 桂枝로 風寒邪를 풀어서 平喘하고, 乾薑·細辛·半夏로 안에 정체되어 있는 水飲을 흠어서 溫寒降逆하며, 五味子·芍藥의 酸味로 수렴하는 약물을 배오하여 肺氣의 소모를 방지하고, 石膏를 더하여 鬱熱을 맑게 하여 煩躁를 없애고, 麻黃과 함께 써서 겸하여 水氣를 發越할 수 있다.⁸⁵⁾ 小青龍加石膏湯과 관련하여 中國의 『金匱要略』 책에서는 麻黃과 石膏를 함께 써서 水氣를 發越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麻黃으로 風寒邪를 풀어 平喘하고, 石膏로 清裏熱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는 고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經疏證』에서는 小青龍加石膏湯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앞의 麻黃과 石膏의 유사 효능 중 두 번째 뭉친 것을 풀어냄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石膏가 煩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陰氣不足으로 갑자기 勝해진 陽을 化하여 胃에 뭉친 것을 풀어줌으로써 煩證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는데⁸⁶⁾, 이는 小青龍加石膏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뭉친 것을 풀어내는 유사성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며, 뭉친 것을 풀어내는 이면의 機轉에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한 津液의 소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9) 厚朴麻黃湯

厚朴麻黃湯은 痰飲으로 咳逆上氣, 胸滿, 喉中不利하고 脈이 浮한 병증을 치료할 때 쓰는 方劑로⁸⁷⁾, 厚朴 5兩, 麻黃 4兩, 계란만한 크기의 石膏, 杏仁·半夏·五味子 각 半升, 乾薑·細辛 각 2兩, 小麥 1升으로

8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391-394.

82)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124-143. “越婢加朮湯, 治水之劑也.”

83)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矧證之以千金用越婢加朮湯, 治肉極熱, 則身體津脫, 腠理開, 汗大洩, 顧何謂耶. 夫亦以熱盛於中, 內不與陰和, 而外迫逐津液, 與纒所論者, 無異. 特恐通其陰而陰遂逆, 故凡兼惡風者, 卽於湯中加附子耳, 尙不可信麻黃石膏並用, 可治汗出耶.”

8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99-201. “肺脹, 咳而上氣, 煩躁而喘, 脈浮者, 心下有水, 小青龍加石膏湯主之.”

8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99-201.

86) 鄒澍 撰. 金善鎬 懸吐. 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8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88-189. “咳而脈浮者, 厚朴麻黃湯主之.”

구성되어 있다. 본 方劑의 病機는 病이 表에 가깝고 또 邪氣가 상부에서 왕성하며 아울러 表邪를 끼고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본 方劑는 厚朴을 君藥으로 하므로 기침하고 脈浮한 것 외에 응당 胸滿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方劑는 散飲降逆하고 止咳平喘하며 方劑 중 麻黃·厚朴·杏仁은 宣肺泄滿하여 降喘逆하고, 乾薑·細辛·五味子·半夏는 祛寒化飲하여 止咳하며, 石膏는 淸熱除煩하고 小麥은 安中養正한다.⁸⁸⁾ 厚朴麻黃湯과 관련하여 中國의 『金匱要略』 책에서는 麻黃이 宣肺하고, 石膏는 淸熱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는 고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經疏證』에서는 厚朴麻黃湯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熱邪가 왕성할 때 猖狂하여 陰과 교류하지 못하므로 陰과 교류하게 하려면 泄熱해야 하고, 泄熱할 뿐만 아니라 방자한 陰이 陽을 꺾박할까 두려우므로 陰을 통하게 하여 陰과 陽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厚朴麻黃湯을 예시로 들었다.⁸⁹⁾ 이는 厚朴麻黃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그 결과 멎친 것을 풀어냈다고 할 수 있다.

10) 文蛤湯

文蛤湯은 嘔吐를 한 뒤에 津液 부족으로 물 마시는 것을 貪하고 脈緊頭痛 등의 表證이 있을 때 적용하는 方劑로⁹⁰⁾, 文蛤·石膏 각 5兩, 麻黃·甘草·生薑 각 3兩, 杏仁 50개, 大棗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嘔吐를 한 뒤에는 水가 제거되고 熱이 머무르며, 熱이 나면 물을 소모하므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한다. 그러나 貪飲은 그 형세가 반드시 마시는 것이 많고 水飲이 안에 정체되며 게다가 원래 있었던 餘熱의 未盡함이 더해지므로 水와 熱이 서로 맺히게 되므로 文

蛤湯을 써서 發散祛邪하고 淸熱止渴한다.⁹¹⁾ 본 처방 중 文蛤은 鹹寒하여 利水消飲하고 石膏를 배오하여 淸熱止渴하며, 麻黃과 杏仁은 宣肺發汗行水하고, 生薑·大棗·甘草는 健脾益胃·化飲生津·調和營衛하며, 여러 약들이 서로 합하여 肺가 宣發하고 肅降하게 되어 水道가 通調되고 飲邪가 消散되며 內熱이 풀린다.⁹²⁾ 文蛤湯과 관련하여 中國의 『金匱要略』 책에서는 麻黃이 宣肺發汗行水하고, 石膏가 淸熱止渴한다고 설명하여 表에는 麻黃이, 裏에는 石膏가 적용된다는 고정된 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經疏證』에서는 文蛤湯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本經疏證』의 石膏 항목에서 麻黃이 石膏를 얻으면 發散이 맹렬하지 않다고 하면서 麻黃의 효능을 從陰通陽하며, 陽이 陰에게 방해를 받는 경우는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니, 寒熱의 邪氣로 인하여 응체되거나 막히게 되는데, 寒邪로 응체될 경우에는 桂枝를, 熱邪로 막힐 경우에는 石膏를 더한다고 했다.⁹³⁾ 文蛤湯은 桂枝가 아닌 石膏를 더해준 것으로 嘔吐한 뒤에 津液이 부족해지고 熱邪가 未盡하므로 淸熱止渴하는 石膏에 利水消飲하는 文蛤을 써서 貪飲證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文蛤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는 유사성을 활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책의 麻黃 항목에서 文蛤湯으로 水를 다스리는 것은 表證이 없으니, 表證이 없는데도 麻黃을 쓴 것은 『本經』에서 말한 “止咳逆上氣, 破癥堅積聚.”라고 하면서 表를 통해 分消하는 것은 皮毛와 습을 이루고 있는 肺에 病이 든 것을 皮毛로 배설함으로써 내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⁹⁴⁾, 이는 文蛤湯을 설명함에 있어서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멎친 것을 풀어냈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좀 더 통합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8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88-189.
89) 鄒澍 撰. 金善齋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9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496-497. “吐後, 渴欲得水而貪飲者, 文蛤湯主之, 兼主微風脈緊頭痛.”

9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496-497.
92) 艾華 主編. 金匱要略辭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58-59.
93) 鄒澍 撰. 金善齋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488-501.
94) 鄒澍 撰. 金善齋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pp.3-21.

Ⅲ. 고찰

이상에서 麻黃과 石膏의 효능을 살펴본 결과 麻黃은 發陽 혹은 從陰通陽하여 陰分에 걸취되어 있는 陽을 풀어내어 邪氣가 땀을 통해 배출이 되니, 陰의 세력이 방자하게 陽을 꺾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안정 되고, 通陰하여 울체되었다가 우적 일어나는 陰으로 하여금 陽을 따라 누설시키며, 氣를 돌려서 津液을 이르게 하고 精血津液을 유통시키는 특징이 있고, 石膏는 泄陽通陰하여 陽이 위로 뭉쳐서 陰이 아래로 轉輸되지 않음에 陽을 누설시켜 陰이 아래로 轉輸되게 하여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며, 熱을 누설시켜 陰으로 하여금 陽과 교통하게 함으로써 陽의 맹렬함을 가라앉혀주는 특징이 있고, 이 힘에 의해 陰이 제자리로 돌아와 津液의 灌溉와 輸送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津液을 소통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麻黃과 石膏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내며, 陰分の 熱 또는 陽

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두 약물이 모두 肺經으로 歸經하여 宣發肅降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考察에서는 本論에서 논한 麻黃과 石膏의 유사성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考察하고,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10개의 方劑에서 麻黃과 石膏가 지닌 유사성이 어떻게 발휘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麻黃과 石膏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내며,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었는데, 이 유사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麻黃과 石膏가 함께 쓰인 10개의 方劑는 모두 기본적으로 麻黃의 從陰通陽하고 石膏의 泄陽通陰이라고 하는 陰陽의 상호 작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麻黃과 石膏가 從陰通陽하고 泄陽通陰하여 氣機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津液의 소통도 원활해지는데,

표 1. 麻黃과 石膏가 함께 들어가는 方劑表

方劑	麻杏 甘石湯	大青 龍湯	桂枝二 越婢一湯	麻黃 升麻湯	越婢湯	越婢加 半夏湯	越婢 加朮湯	小青龍 加石膏湯	厚朴 麻黃湯	文蛤湯
효능	陰陽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陰分熱陽氣 풀어냄	陰陽소통 陰分熱陽氣 풀어냄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陰陽소통 津液소통 뭉친것해소
甘草	2兩	2兩	18銖	6銖	2兩	2兩	2兩	3兩		3兩
乾薑				6銖				3兩	2兩	
桂枝		2兩	18銖	6銖				3兩		
當歸				1兩1分						
大棗		12개	4개		15개	15개	15개			12개
麻黃	4兩	6兩	18銖	2兩半	6兩	6兩	6兩	3兩	4兩	3兩
文蛤										5兩
半夏						半升		半升	半升	
白朮				6銖			4兩			
茯苓				6銖						
生薑		3兩	1兩3錢		3兩	3兩	3兩			3兩
石膏	半斤=8兩	鷄子大=6兩	24銖	6銖=1/4兩	半斤	半斤	半斤	2兩	鷄子大	5兩
細辛								3兩	2兩	
小麥									1升	
升麻				1兩1分						
五味子								半升	半升	
萎蕤				18銖						
芍藥			18銖	6銖			3兩			
知母				18銖						
天門冬				6銖						
杏仁	50개	40개							半升	50개
黃芩				18銖						
厚朴									5兩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내는 方劑는 越婢湯, 越婢加半夏湯, 越婢加朮湯, 小青龍加石膏湯, 厚朴麻黃湯, 文蛤湯이며,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뭉친 것을 풀어내는 데에 효력을 발휘하는 方劑는 麻杏甘石湯과 大靑龍湯이며,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方劑는 桂枝二越婢一湯과 麻黃升麻湯이다.

10개의 方劑 중 麻杏甘石湯과 大靑龍湯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뭉친 것을 풀어내는 공통점이 있다. 麻杏甘石湯과 大靑龍湯은 둘 다 風寒의 邪氣가 울체되어 熱로 변화하여 肺熱이 있는 것으로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 즉 發陽함으로써 陰分에 결취된 陽을 發揚하고, 麻黃을 써서 表를 통해 裏病을 分消하며,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하고, 石膏를 써서 氣분에 뭉친 熱을 다스림으로써 뭉친 것을 풀어내 肺熱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大靑龍湯에 들어가는 약물이 麻杏甘石湯에 비하여 桂枝, 生薑, 大棗가 더 들어가므로 風寒邪로 인한 表證이 더 많고, 麻杏甘石湯은 麻黃과 石膏의 비율이 1:2로 裏證에 더 편중된 方劑라고 할 수 있다.

麻黃과 石膏의 陰陽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하고 뭉친 것을 풀어내는 方劑는 越婢湯, 越婢加半夏湯, 越婢加朮湯, 小青龍加石膏湯, 厚朴麻黃湯, 文蛤湯인데, 越婢湯·越婢加半夏湯·越婢加朮湯은 모두 越婢湯이 포함되어 있는 方劑들이다. 越婢加半夏湯과 越婢加朮湯은 中焦의 水濕이 잘 運化가 되지 않아서 생긴 痰飲을 치료하기 위한 方劑로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하고, 麻黃의 輕淸함으로 上下内外를 소통시키고 精血津液을 유통시키며,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하고, 石膏의 辛味로 上下의 道路를 통하게 하고 運淸함으로 津液의 灌溉와 輸送을 연결하여 脾가 水濕을 잘 運化할 수 있게 돕는 方劑이고, 越婢湯은 風水로 惡風하여 진신이 붓는 것을 다스리는 方劑로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하고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함으로써 風水를 치료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厚朴麻黃湯은 肺에 가볍게 水氣가 쌓인 것

으로 降逆하는 厚朴을 君藥으로 하고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하고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함으로써 陰陽을 상호 작용하게 하고, 麻黃의 輕淸한 재질과 石膏의 辛味 및 運淸함은 上下로 津液을 소통시켜 水氣가 쌓인 것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小青龍加石膏湯과 文蛤湯은 모두 水飲과 관련이 있는 처방이다. 文蛤湯에서 水飲이 정체되는 이유는 嘔吐로 津液을 상실한 후에 이를 보충하고자 물을 많이 마시다가 水飲이 정체되는 것으로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하고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함으로써 陰陽을 상호 작용하게 하고, 麻黃의 輕淸한 재질로 精血津液을 유통시키고 石膏의 매운 맛과 運淸함으로 津液의 灌溉와 輸送을 연결하는데 餘熱이 있으므로 麻黃보다는 石膏의 용량을 더 많이 써서 津液을 소통시킨다고 할 수 있다. 小青龍加石膏湯은 평소 心下에 水飲이 있다가 風寒을 감수하여 内外의 邪氣가 합쳐져 喘咳胸滿하고 煩躁하게 되는 것으로 麻黃을 써서 從陰通陽하고 表를 통해 裏病을 分消하며, 石膏를 써서 泄熱通陰하고 氣분에 뭉친 熱을 다스림으로써 水飲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을 주며, 麻黃의 용량이 石膏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麻黃과 石膏가 함께 들어가는 10개의 方劑 중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陰分의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는 처방은 桂枝二越婢一湯, 麻黃升麻湯 등이 있다. 桂枝二越婢一湯은 桂枝湯과 越婢湯의 合方 處方으로 裏熱을 淸泄하여 鬱陽을 發越하고, 麻黃升麻湯은 瀉下시킨 후 寒邪가 속으로 內陷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치료하는 方劑로 두 方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물은 麻黃, 石膏, 桂枝, 芍藥, 甘草인데, 이 중 桂枝二越婢一湯에서 麻黃과 石膏의 비율은 3:4로 石膏의 용량이 더 많아 裏熱을 淸泄하는 데에 중점이 있고, 麻黃升麻湯에서 麻黃과 石膏의 비율은 10:1로 麻黃의 용량이 石膏보다 10배나 많아 誤下로 인해 陰分으로 꺼져 들어간 邪氣를 麻黃으로 發越鬱陽한다. 특히 麻黃은 從陰通陽하여 陰分에 잠복되어 있는 陽을 이끌어 내어 陽氣를 풍성하게 하고, 石膏도 함께 써서 泄熱하여 陰中에 內伏한 陽을 통하게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麻黃과 石膏가 一溫一寒·一升一降·一散一收하여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두 약물을 配伍하여 서로 다른 작용을 억제하거나 寒熱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목했다. 반면 본 연구는 麻黃과 石膏가 지니고 있는 상호 유사성에 주목하여 두 약물이 모두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하고, 뭉친 것을 풀어내며,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을 10개의 方劑에서 발휘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기초 연구 및 本草學과 方劑學의 기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V. 결론

이상에서 麻黃과 石膏의 효능에 대하여 유사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麻黃과 石膏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시키고, 뭉친 것을 풀어내며,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는데, 이 유사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두 약물이 모두 肺經으로 歸經하여 宣發肅降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 麻黃과 石膏가 배합된 10개의 方劑는 기본적으로 모두 麻黃이 從陰通陽하고 石膏가 泄熱通陰하여 陰陽의 상호 작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3. 麻黃과 石膏가 배합된 方劑 중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뭉친 것을 풀어내는 방제는 麻杏甘石湯, 大青龍湯이다.
4. 麻黃과 石膏가 배합된 方劑 중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하고 뭉친 것을 풀어 내는 유사성이 있는 方劑는 越婢湯, 越婢加半夏湯, 越婢加朮湯, 小青龍加石膏湯, 厚朴麻黃湯, 文蛤湯이다.
5. 麻黃과 石膏가 배합된 方劑 중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이 있는 方劑는 桂枝二越婢一湯,

麻黃升麻湯이다.

6.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麻黃과 石膏가 一溫一寒·一升一降·一散一收하여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두 약물을 配伍하여 서로 다른 작용을 억제하거나 寒熱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목했다. 반면 본 연구는 麻黃과 石膏가 지니고 있는 상호 유사성에 주목하여 두 약물이 모두 陰陽의 상호 작용을 통해 津液을 소통하고, 뭉친 것을 풀어내며, 陰分の 熱 또는 陽氣를 이끌어 내는 유사성을 10개의 方劑에서 발휘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기초 연구 및 本草學과 方劑學의 기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Reference

1. 柯琴 編撰.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 陶弘景 編. 尚志鈞·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3. 류두저우 지음.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 傷寒論講義. 과주. 물고기숲. 2014.
4. 劉靜, 傅杰, 丁舸. 試論麻黃、石膏核心藥組在方劑配伍中的意義. 中醫研究. 2013. 26(10).
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6. 李彪 著. 杜曉玲 校注.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7.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8. 李飛 主編. 方劑學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9.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 新校注本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10. 李晨光, 賈波, 張建偉. 基于現代醫案探討麻黃與石膏的配伍特點. 江西中醫藥. 2010. 41(08).
11. 林佩莉. 《傷寒論》藥對配伍規律的研究. 浙

- 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12. 박상균, 방정균. 『傷寒論』大青龍湯證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14. 27(2).
13. 尙志鈞 輯校. 尙元勝 等 整理. 神農本草經輯校. 北京. 學苑出版社. 2014.
14. 徐偉輝, 龔高柏. 《傷寒雜病論》中麻黃與石膏配伍規律探討. 國醫論壇. 2001. 2.
15. 宋小強. 淺析麻黃與石膏配伍在仲景方中的應用. 陝西中醫函授. 1987. 3.
16. 安鎮熹. 『本經疏證』의 『本草述』 引用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1. 34(1).
<https://doi.org/10.14369/jkmc.2021.34.1.103>
17. 閔明 外 4人. 經方中麻黃與石膏的配伍規律探析. 上海中醫藥大學學報. 2015. 29(02).
<https://doi.org/10.16306/j.1008-861x.2015.02.004>
18. 王小榮, 趙永山. 從麻黃與石膏的運用看《傷寒論》的動態辨證. 國醫論壇. 2002. 17(2).
19. 尤怡 著, 張慧芳 校注. 傷寒貫珠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20. 張保偉. 《傷寒雜病論》中麻黃石膏用量比與其作用關係探討. 河南中醫. 2003. 23(1).
<https://doi.org/10.16367/j.issn.1003-5028.2003.01.001>
21. 張清怡 外 3人. 《傷寒論》麻黃石膏表裏同治探要. 吉林中醫藥. 2013. 33(04).
<https://doi.org/10.13463/j.cnki.jlzyy.2013.04.010>
2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17.
23. 朱美香. 張仲景石膏配伍規律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1. 17(06).
24. 陳修園 著, 안영민 譯. 金匱方歌括. 서울. 살구숲. 2018.
25. 陳柱杓 編譯.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法仁文化社. 2006.
26.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上). 大田. 周珉出版社. 2012.
27. 鄒澍 撰, 金善鎬 懸吐·譯. 本經疏證(下). 大田. 周珉出版社. 2012.
28. 夏志強. 張仲景《傷寒雜病論》中石膏的應用規律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https://doi.org/10.26988/d.cnki.gcdzu.2020.000243>
29. 胡紫馨, 余芙歡, 于河. 從幾何結構解析經典方劑中麻黃與石膏的配伍規律.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20. 43(04).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1985.